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94 1982년 12월 1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December 1, 1982

DEC 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국고교출신 유학생대상
13학년 전문교 설치
한인사회 최초, 내년 6월개교

한인사회 최초로 대학(University)진학을 위한 대학전문예비교(캐나다고교 13학년과정) 과정이 설치된다. 알버트·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따 세인트·알버트·칼레지에이트(Saint Albert Collegiate)라고 이름 지어진 이 학교는 주로 캐나다, 미국, 영국의 대학에 유학하려는 한국고교 졸업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내년 6월 개학할 예정이다.

입학자격은 고교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로 그 대상은 캐나다는 물론 한국과 미국의 고교를 졸업한 한인학생들이다.

약1년간 학교설립 준비를 해 온 김철박사(40·온타리오정부 소속 알콜및 약물중독연구소 약물연구과장)는 "가장 중요한 온타리오문교부 허가를 지난 10월20일자로 받았고(허가번호 882321), 한국 문교부와도 협의가 끝나, 한국학생들은 1년제 단기 연수여권으로 유학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장 문제시된 것은 한국고교졸업생들이 캐나다 대학전문예비교에 입학하기 위해 출국하는 것을 한국정부가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지난12일 한국을 방문한 김박사가 한국 문교및 외무부관계자들과 협의, 1년제 단기연수여권으로 유학온후, 1년간의 예비교를 졸업한 후, 다시 정규대학에 입학하면 현지에서 본국 외무부를 통해 청규 유학여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음으로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현 여권법에 의하면 단기연수여권은 현지공관에서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공관을 통해 본국 외무부의 허가를 받은후 변경될 수 있다.

◆한인 최초의 대학입학교과과정을 확재로한 전문학교를 설립한 김철박사

이토비콕 85-31st.St에 있는 전 중학교건물(Parkview Junior School)을 학교로 사용할 알버트예비교의 교수진은 모두 이곳 고교교사자격증 소지자들로 구성된다.

김박사가 임시 교장대리로 일할 이 학교의 이사진은 Dr.Khanna(토론토대학교수), Dr.Boundas(트렌트대학교수), Mr.N.P.Silverg(변호사), 문우일박사(마니토바대학교수)및 김박사등 5명이다.

온타리오문교부 교육지침을 따르고 수시로 문교부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알버트예비교는 졸업생들에게 온타리오정부 인정 졸업장(Secondary School Honor Graduation Diploma: SSHGD)을 주며, 이 졸업장을 가지면 북미및 영국 어느 대학에도 진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방사선생물학 박사(70년 스톡홀롬대학)로 5년간 토론토대학등서 연구한 김박사는 한인학생뿐만 아니라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등의 외국 학생도 입학시킬 예정이다.

첫 입학생 1백명은 내년6월 개학때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영어를 집중교육 받고, 9월부터 내년5월까지는 영어와 정규과목을 배운다.

11월부터 이미 입학원서가 발부, 12월말에 1차 서류합격자를 뽑는다, 내년 1월에는 서울서 면접으로 한국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알버트예비교의 연락주소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Saint Albert Collegiate
P.O.Box 430
Station "D"
Toronto, Ont.
Canada, M6P 3K1

전화 (416)251-0716
(416)299-1103(R)(저녁때)

한국, 83년1월1일부터 여권사진 천연색으로

한국정부는 83년 1월1일부터 여권용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29일 총영사관이 통보해온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권용 사진으로 흑백과 천연색이 공히 허용되어 왔으나,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여권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사진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권용 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통일하여 발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총영사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여권신청시 천연색 사진만을 접수할 예정으로 교민들께서 여권사진 촬영시 유의해 주길 바라고 있다.

렌트인상 평균13%
전 캐딜락소유아파트

최근 캐딜락·페어뷰회사에 의해 매각된 10,931개의 아파트및 타운하우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에이스필드·푸로퍼티·매네지먼트(MPM)회사는 30일 평균 13%의 임대료인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MPM의 신임사장인 로버트·스트롬씨는 운영비 인상과 아파트구입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 때문에 평균 13%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스트롬사장은 이어 대부분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의 임대비 인상율은 13%이하로 책정되겠지만 일부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19%까지 인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아파트의 평균임대료는 월380달러이기 때문에 13% 인상되면 임대료는 평균 429달러가 될 것이라고 스트롬사장은 전하고 19%의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현재 평균 임대료가 325달러인 "작고 오래된" 건물이라고 밝혔다. 임대료가 325달러인 아파트거주자의 경우 19%가 오르게 되면 386달러의 집세를 내게 된다.

◀사 고▶

사진대회 시상식 =12월4일 하오2시=

지난 10월2일 실시된 제7회 촬영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12월4일(토) 하오2시 Wayside화랑(9185 Yonge St. Borovov Plaza내, HWY7 북쪽)에서 칵테일파티를 겸해 거행됩니다.

아울러 입선사진작품들과 사진협회 임원들이 지난 여름 록키산맥에 원정 촬영한 절경의 풍경사진들도 함께 전시됩니다.(록키산 촬영자-전경수, 임정재, 김명선, 이성춘, 이기성)

이 사진전시회는 12월4일~11일, 8일간 계속되며, 작품에 따라 판매도 합니다.

사진대회 참가자, 사진애호가는 물론 일반교민 여러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한인사진협회·토론토한국일보사—

한국 국제 경쟁력 약화
유럽시장서 아시아 5위

(서울30일)=한국은 금년 1·4분기 유럽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에 있어 다른 아시아국가에 훨씬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진흥공사가 30일 밝힌바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 경쟁력에서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등에 이어 다섯번째에 머물렀다.

수출증가에 필요한 13가지 부문을 분석한 동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상품의 질면에서 두번째, 가격면에서 세번째, 디자인과 포장기술에서 네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량 주문에 있어서는 최하위이다.

무역진흥공사가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각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격: 중공,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폴, 일본
▲품질: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폴, 대만, 중공
▲판매후 서비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한국, 중공
▲포장기술: 일본, 홍콩, 싱가폴, 한국, 대만, 중공
▲새 상품개발: 일본, 홍콩, 싱가폴, 대만, 한국, 중공
▲소량 주문: 홍콩, 대만, 싱가폴, 일본, 중공, 한국
▲견본준비속도: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한국, 중공
▲수출시장개발: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한국, 중공
▲적시 선적: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한국, 중공
▲클래임 해결속도: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한국, 중공

북한, 중공에 더밀착
소련과 멀어져·· 저널지보도

지난 수십년간 중공과 소련 양국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취해오던 북한이 최근 소련을 멀리하고 중공과 가까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공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릿저널지가 26일 보도했다.

지난 11일 브레즈네프사망에 대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등 아시아공산국가들이 3~4일로 잡은 국민애도 기간을 북한은 단하루만 애도기간을 가졌다고 밝힌 이 신문은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은 금년 4월이후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월스트릿저널지는 소련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각 공산국가에 과시하려는데 비해 중공은 훨씬 점잖은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공과 가까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9월 중공공산당 제12차 전당대회때 북한대표가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등 친중공공산국대표를 보다 앞자리에 앉았었다고 덧붙였다.

중공은 최근 김일성아 다녀간후 북한에 보내는 각종문서에 김일성과 함께 아들 김정일도 지도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신문은 중공이 북한 반대로 인해 한국과의 간접무역에서 손을 뗐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全·나까소네 전화통화
한·일 정상회담 제의

(서울30일=연합)전두환대통령은 30일 한·일간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나까소네·야수히로 신임일본수상에게 조기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황선일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나까소네수상이 전대통령이 보낸 수상당선에 축하전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청와대로 전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중 이같은 제의를 했다고 밝히면서, 전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나까소네수상은 "나 역시도 각하를 직접 상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대통령과 일본수상이 전화통화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대통령과 나까소네의 전임자인 스즈끼·젠꼬와의 회담제의는 실현되지 못했다.

1974년8월 다나까·가꾸에이수상이, 영부인 육영수여사의 장례식에 참석차 서울에 들렸을때, 고박정희대통령과 만난후 양국수뇌간의 정상회담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다이아몬드·순금 판매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11. 18부터)

기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533 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34 BLOOR ST W
B 536 7692
R 245 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투자이민 안내>
ㅁ자 격: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생산업(제조업)에 최소 2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
ㅁ투자금액: 대한민국 외국환관리법및 기타 이민법등에 의해 최대한의 자산.(동산및 부동산 포함)
ㅁ투자이민 장소: 캐나다 퀘벡주.
ㅁ언 어: 불어. 이민면담시(1983년11월 예정) 불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
ㅁ투자이민 응모 희망기한 만료: 1982년12월10일(금)까지.
ㅁ제출서류: 희망자 성명및 사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공장 포함) 증빙서류.
ㅁ사전면담및 현지방문: 1983년1월 초순.(단, 투자이민 가능성을 사전타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함)
※사전심사에 통과된 희망자는 1983년 1월15일부터 정식수속 가능하며, 본사는 이민투자 수속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장조사및 연구와 더불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을 도와줌.
(주)현영일 국제경영Consultant
(416)444-9341 (8:00 p.m.-10:00 p.m.)

IATA
여행을 즐기십시요.
「신세계」는 여러분의 여행을 가장 추억에 남도록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단체 매주 출발 〈CP. JAL. KAL〉
*동남아지역 BUSINESS 특별요금
*세계명소 단체관광 〈구라파, 성지순례, 럭키 국립공원, 하와이 모국산업시찰, 멕시코, 풀로리다〉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이민, 방문 초청안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 창 범
R) 492-7525
IATA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음주운전강력단속
12월 한달간 요주의

이 마크(Logo)는 메트로경찰의 돈·콜본 경사와 그 딸인 OCA학생 신시아(25)양이 공동제작한 것이다.

연말연시 파티의 계절을 맞아 메트로경찰은 음주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연례 캠페인을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벌인다.

메트로경찰의 잭·막크스 부총경은 30일 "앞으로 12월말까지 한달동안 메트로의 700여개소에서 크리스마스 도로안전프로그램이 강력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운전을 강력 단속하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는 온타리오 교통 체신부의 보고서에서 지난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수의 58.7%가 과음때문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이 숫자는 5년래 최고였다.

음주운전단속 캠페인이 벌어졌던 작년12월중 발생한 5,138건의 교통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1,139명이 부상했으며, 총 1,657명의 운전자들이 기소됐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제지를 받는 운전자는 알코홀섭취도 테스트를 받은 다음, 법적 규정을 넘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무조건 12시간 운전정지와 함께 자동차도 경찰이 보관한다.

경찰은 일단정지시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싯·벨트 착용여부, 차의 정비상태까지 체크해서 법정최고액의 벌금형을 때린다. 싯·벨트를 착용안한 경우, $58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자는 2천달러이하의 벌금형이거나, 혹은 6개월이하의 징역형이거나,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위의 어떤 경우건 3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재범일 경우 14일내지 1년여 징역형과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3번이상 음주운전으로 걸릴 경우는 3개월내지 2년 징역형과 3년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의 불심검문(Spot Check)에 걸리는 운전자에게는 키와 몸무게에 따라 알코홀 섭취허용량이 명시된 카드와 함께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마크가 배부된다.

참고로 안전 운전에 관한 법규와 참고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형법위반사항

1.알코홀이나 드럭(마약)복용으로 부주의한 운전을 할 경우.

2.혈액내의 알코홀 섭취도가 80을 넘을 경우.

3.알코홀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벌 칙

초범: $2,000이하의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혹은 두가지 벌칙을 다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던 3개월간 면허정지.

재범: 14일내지 1년간 징역, 6개월간 면허정지.

3범이상: 3개월내지 2년 징역, 3년간 면허정지.

▲「온」주 하이웨이 교통규칙

경찰은 아래의 경우 운전자의 면허를 12시간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

1.노상 알코홀 측정기에 "경고(Warn)"신호를 받았을 경우.

2.알코홀 섭취도가 50이상인 경우.

3.알코홀 측정검사를 거부할 경우.

▲혈액의 알코홀 섭취 측정표

(법적 알코홀 섭취 허용기준은 1백밀리리터 혈액당 80밀리그램 이하이다.)

체중(파운드)	섭취량 1	2	3	4	5	6
100	43	87	130	174	217	261
125	34	69	103	139	173	209
150	29	58	87	116	145	174
175	25	50	75	100	125	150
200	22	43	65	87	108	130
225	19	39	58	78	97	117

※섭취량 1은 알코홀성분 40%인 술 1½온즈, 10-14%인 테이블·와인 5온즈, 혹은 알콜성분 5%인 12온즈들이 맥주 각 1병씩을 기준으로 한것이며 알코홀 섭취후 테스트까지의 경과시간등 기타 요인들에 의해 조금씩 달라진다.

운전 잘 하면 공짜 영화관람

운전도중 붙들렸다고 해서 무조건 재수없는 날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메트로 경찰은 앞으로 2주간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 영화관람표를 나누어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색계획은 메트로경찰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위한 단속강화와 아울러 안전운전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찰이 나누어줄 무료관람권으로는 12월15일 수요일밤 7시15분 시청 맞은편 쉐라톤·센터 호텔내의 쉐라톤 시네마에서 상영될 로맨틱 코메디 〈베스트·프랜즈〉를 볼 수 있다.

주연은 버트·레이놀즈와 골디·혼이다.

코리아타운번영회 3일밤 연말파티

코리아·타운번영회(회장 장순채)는 오는 3일(금) 하오7시 오리엔탈 팔레스와 뉴서울식당 1, 2층을 전부 빌려 연말파티를 가진다.

모두 79개업소가 등록된 코리아·타운 번영회의 연말파티에는 잉·호프시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20>

출발 ①

드디어 舞臺는 홍콩의 어느 아파트로…

홍콩 12월29일 아침 10시.

아파트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얼굴을 찡그린채 상체를 일으켰다. 전화벨 소리가 요란스러웠다.

『빌어먹을…』

중얼거리면서 그는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기 병원인데요.』

간호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음, 뭐야?』

그는 하품을 길게했다.

『아까부터 어떤 분이 오셔서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환자야?』

『환자는 아니예요.』

『무슨 일로 나를 만나겠다는거야?』

『모르겠어요.』

『전화 바꿔봐.』

조금 후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창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좀 만나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없을까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가요? 전화로 말씀해보시죠.』

『전화상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쉬고 있읍니다.』

『그럼 댁으로 방문하면 안될까요? 잠깐이면 됩니다.』

『안 됩니다. 실례하겠소.』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더욱 얼굴을 찌푸렸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자 눈부신 햇살이 방안 가득히 쏟아져 들어왔다. 그 아래로 빅토리아항이 보였고 눈앞에 홍콩섬을 향해 푸른 바다가 시원히 펼쳐져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침대쪽을 바라보았다.

침대 위에는 여자가 한명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있었다. 여자는 시트를 허리에 조금 두른채 모로 누워있었다. 등을 따라 내려가던 그의 시선이 엉덩이에 머물렀다. 쭉 뻗은 엉덩이었다. 풍만하고 탄력있는 엉덩이었다. 멋진 히프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사나이도 벌거벗고 있었다. 지난밤의 성희(性戲)가 너무 지나쳤던지 그들은 새벽녘에야 지쳐 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한숨 자고 난 지금 그는 다시 하체가 뿌듯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나체를 보는 순간 다시 그것이 고개를 쳐든 것이다.

그는 침대로 올라가 그 건장한 몸을 여자위에 실었다.

『무슨 전화예요?』

여자가 눈을 감은채 물었다.

『응, 아무 것도 아니야.』

깨어있었군. 『그래.』

『전화소리에 깼어요. 심각한 전화 같던데요.』

『아무 것도 아니야. 어떤 미친 놈이 나를 좀 만나고 싶다는거야. 싫다고 그랬지.』

『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朴 男 그림

12월4일 볼링대회
첫시리즈 챔피언 김동천조

토론토의 한인볼링협회(회장 정용필)는 본사 후원으로 오는 12월4일(토) 정오 Wilson Pro 10 Bowl에서 제2회 코리안컵 볼링대회를 개최한다.

경기종목은 개인전, 남·녀혼합전및 단체전이다.

혼합전은 부부, 연인, 남매등 남·녀혼성이면 누구든지 출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의 단체팀은 교회, 동창회등 공인된 단체 소속선수들로 구성해야 출전이 허용된다. 종전의 단체팀은 대회장에 나와 안면있는 사람끼기(소속 없이) 즉흥팀을 구성, 단체명없이 출전했기 때문에, 매번 정해진 사람들이 입상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주최측은 말한다.

또한 이번 단체전은 여자선수 2명을 꼭 포함, 6인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팀의 실력차가 적은 친선게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17일부터 매주 금요일 하오6시45분부터 Wilson Pro 10 Pin Bowl에서 실시중인 82~83년도 볼링리그에는 10개팀(4인조)이 참가, 3개 시리즈로 나누어 리그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 첫 시리즈를 끝낸 현재 전적은, 시리즈 챔피언에 김동천, 이광우, 이명진, 김인옥조가 플레이오프 출전자격을 얻고 있다.

한편 볼링협회는 회원및 교민을 위한 제2회 크리스마스겸 송년파티를 12월18일(토) 하오7시30분 Albion Community 센터(1485 Albion Rd.×Kiping Ave.)에서 연다.

교포여고생 피살
미국인가정 입양…미모의 고아

(뉴욕지사) 미국인가정에 입양돼 살면서 고등학교의 응원단장을 맡아 동료학생들의 선망을 받아오던 교포 아미·호프만양(18)이 추수감사절인 25일 뉴저지주 모리스카운티 넨드햄 저수지탱크에서 칼에 찔려 숨진 시체로 발견됐다.

뉴욕 모리스카운티경찰에 따르면 호프만양은 23일 하오9시께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하노버타운에 있는 모리스카운티 쇼핑몰 옷가게에서 유괴된지 36시간후인 25일 정오께 넨드햄저수지탱크에서 등산객들에 의해 피살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아미양이 깊이 8~9인치의 칼에 가슴 4군데를 찔려 엎드려 숨진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아미양은 실종될 당시 입고 있었던 푸른색 스커트와 갈색스웨터에 겨울부츠를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26일 숨진 아미양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응원단장을 지낼 정도로 인기있는 미인이며, 사건발생 수일전 협박전화를 받은적있어 이번 사건은 이성간의 심한 질투로 인한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미양은 5살때 양녀로 입양되어 미국에 왔다고 한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아시안게임 남북대결
탁구등 7개종목서 부딪쳐

(서울-본사)종반으로 접어든 제9회 아시안게임은 중공, 일본에 이어 인도와 한국이 3위를 놓고 숨가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북한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현재 중공이 금 36·은 29·동 21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일본이 금 34·은 30·동 22로 2위, 3위 한국은 금 10·은 17·동 20이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인도는 금 10·은 7·동 8이다. 5위는 금 7·은 12·동 14의 북한이다.

여자 수영의 최윤희양(15세·서울사대부중)은 지난 23일 여자배영 200m서 2분21초96의 기록으로 첫 금메달, 27일 여자배영 100m 결승서 1분6초39로 금메달, 이어 열린 개인혼영 200m서 2분24초32의 아시안게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또 따서 한국선수로는 최초로 3관왕이 됐고, 최양의 언니 윤정양(16세·상명여고)도 배영 100m와 개인혼영 200m서 은메달 2개를 땄다.

이번 대회의 남·북한의 대결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치열해서 "남은 단체, 북은 개인"이란 전통이 또 다시 드러나고 있어, 참가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남·북한이 이번 대회에서 직접 맞붙은 것은 25일 현재 탁구·배구·궁도·사격·역도·체조·수영의 7개종목.

한국은 탁구 남녀 단체에서 모두 북한을 눌러, 대회초반 기선제압의 교두보를 마련한 뒤, 궁도 여자단체와 여자배구등 단체종목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종목에선 일진일퇴를 거듭중이나 탁구여자단식과 사격을 제외한 수영·역도·궁도 여자개인등에서는 패배,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단체경기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남·북한은 남자농구에서 나란히 예선을 통과, 결승리그서의 격돌을 앞두고 있고, 풀리그로 치러지는 여자농구서도 한판 승부를 겨룰 예정.

그러나 전력이나, 그동안 다른 팀과의 전적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이 한수 위에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거둔 승리는 대부분 역전승이라는 사실도 주목할만 하다. 대회초반 남자탁구 단체전서 한국은 5:3으로 뒤지다가 2게임을 연속승리, 극적으로 역전승리에 성공했으며, 여자단체 역시 첫판을 잃은 후, 3-2로 전세를 뒤엎고 승리했다.

25일 있은 여자배구도 첫세트를 북한에 내주었다가 결국 3:1로 역전승했다.

남북대결서 한국은 과거부터 계속 구기종목서 강세를 유지해 왔다. 지난 78년 방콕의 제8회 대회서도 여자배구서 3:0, 남자농구는 일방우세끝에 기권승, 축구결승만 0:0 공동우승했다. 개인전서 북한은 복싱에서 3승1패를 거두었고, 사격·역도서도 한국에 앞서 개인종목 우세를 보였다. 한국은 당시 레슬링서 김종규가 북한의 장북용을 꺾고 2위를 차지한 정도였다.

이번 뉴델리 대회서도 한국은 구기종목에서 북한을 앞지르고 있다. 한국은 남녀농구, 배구, 탁구등에서 분명한 차이로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스포츠가 이번 대회에서 보인 특징은 사격의 급격한 퇴조-지난번 대회서 금메달 6개를 따낸 북한측 메달박스 사격이 이번에는 1개의 금메달도 못따낸 실정이다.

체조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북한은 강세를 보이고, 불모상태였던 수영도 출전,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몇개종목 상승세에도 불구, 한국, 인도에 뒤져 5위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사격·역도·체조·다이빙등 간판급 종목들이 대부분 최강 중공의 그늘에 가려 2, 3위권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구기및 단체종목의 우세를 고수하면서 육상·수영등 많은 메달이 걸린 기본종목은 물론, 전반적인 개인종목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가 온 셈이다.(별표「남북한 직접대결 중간전적」참조)

<25일현재>

종목	부문	한국 — 북한	비고
탁구	남자단체	5—4	①한국 ②북한
	여자단체	3—2	①한국 ②북한
	여단식 2회전	尹[illegible] 3—1 임종화	①②중공
	〃 준준결승	梁英子 3—0 김경선	③한국 (북한8강)
	여복식준준결승	李[illegible]·이영숙 0—3 尹[illegible]·임종화	③북한 (한국8강)
배구	여자부 리그	3—0	진행중
궁도	여자단체	3,853—3,800	①한국 ②북한 ③중공
	〃개인	金珍[illegible] 오광순 1,294—1,295	①북한 ②한국 ③한국(金[illegible])
사격	자유소총 3자세	4,534—4,501	①중공 ②한국 ③북한
역도	60kg급 총계	李[illegible] 이희봉 275kg—277.5kg	①중공 ②북한 ④한국
	56kg급 총계	李明[illegible] 양위영 250kg—255kg	①중공 ②북한 ④한국
체조	남자뜀틀	[illegible] 李[illegible] 19·30—19·30	①중공 ②일본 ③한국·북한
수영	여자평영 2백m	[illegible] 김명숙 2분51초20—43초22	①일본 ②북한 ③한국

·밍크·폭스·세블·라쿤
밍크
C 록키모피
정 승 규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MA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비행기에 오르면 입구에서 Ma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탑승권을 좀 보여주시겠어요?)라고 요구하는 stewardess에게 탑승권을 보이고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좌석에 앉게 된다. 비행기가 이륙되면 일정한 고도에 오를때까지 대부분 귀가 울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고막에 통증이 오는 수도 있는데 이럴때는 껌(gum)을 준비해 두었다가 씹는 것도 귀울림 방지에 도움을 준다.

이어 기내 serve가 시작되는데 먼저 마실것을 주문받게 된다. 승무원이 What would you like to drink?(무얼마시겠읍니까?)라고 물어오는데 이럴경우「오렌지 쥬스를 부탁합니다」는 Orange juice, please.로 또,「얼음 넣은 스카치를 부탁합니다」는 Scotch on the rocks.「7-up을 주세요」는 7-up, please.「콜라 한잔 주세요」는 Coke, please.라고 주문하면 된다.

이때 일방적으로 first class(특등석)이 아닌 경우는 술을 주문하게 되면 술값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A: Ma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B: Here it is. Where is my seat?
A: 13A is on the right side.
B: Thank you.
A: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B: Orange juice, please.

A: 탑승권을 좀 보여 주시겠읍니까?
B: 여기있읍니다. 제 자리가 어디죠?
A: 우측에 있는 13A 입니다.
B: 고맙습니다.
A: 마실 것은 무엇으로 드시겠읍니까?
B: 오렌지 쥬스로 부탁합니다.

★boarding pass: 탑승권.

〈발음〉 Drink:「드링크」가 아니고「쥬링크」로 발음된다. 이는 우리말 ㄷ은 혀끝이 윗치아에 닿지만 영어의 D는 혀끝이 윗치아와 윗몸 사이보다 좀더 안쪽에 대고 발음하기 때문이다.

특히 D다음에 r이 왔을때는 혀끝이 더욱 안쪽으로 들어가서 발음된다.

Ex: Dream〈쥬림〉, dry〈쥬라이〉.

★on the right side: 오른편에

Ex: John is sitting on the right side of the table(잔은 테이블 오른쪽에 있다.)

★Here it is: 여기 있읍니다.(=Here you are).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모국으로 가시는 길—KAL

알찬 서비스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읍니다.

대한항공은 주 23회의 편리한 스케쥴로 가장 빠르게 미국과 한국을 직결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11편, 뉴욕에서 주4편, 호놀루루에서 주 8편씩 서울로 직행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뿐입니다.

모국을 방문하실 때는 어느 항공사보다 편리한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11	월·수·토	13:00	화·목·일	19:20	NONSTOP
KE015	화·목·금·일	22:00	목·토·일·화	06:20	앵커리지
KE001	화·목·토·일	08:40	수·금·일·월	20:40	호노루루·東京

뉴욕➡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07	화·목·금·일	23:00	목·토·일·화	06:50	앵커리지

호노루루➡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50	월·수·금·일	00:40	화·목·토·월	06:30	NONSTOP
KE001	화·목·토·일	13:40	수·금·일·월	20:40	東京

※ 모든 시간은 현지시간 임
※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精誠을 다하는 우리의 날개
大韓航空

대한항공 Tel: (416)862-8250
390 BAY ST. SUITE 720
● 서울여행 535-6004
● 제일여행 535-2377
● 신세계여행사 536-2155
● 한국여행사 531-4607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몬트리얼소식

정관성 지국장

몬트리얼에 한인신부

대구교구의 김용호신부 부임

◆몬트리얼 한인천주교회 신부로 부임한 김용호신부

몬트리얼 한인천주교회는 창립3년만에 한인 신부를 맞게 됐다.

지난1일 몬트리얼에 도착, 현재 몬트리얼의 성·가브리엘 성당에서 사목중인 신부는, 대구 대교구에서 파견된 김용호(35세)신부이다.

76년말 한인신자들끼리 미사라도 함께 올리자는 움직임에 힘입은 신앙친목단체 "신우회"가 모체인 몬트리얼 한인천주교회는, 78년 6월24일 몬트리얼교구장 폴·그레고리 대주교의 인준을 거쳐 80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 계속 잔·펠리시에 신부가 사목해 왔다.

폴·그레고리추기경은 한국인 신부를 원하는 한인 교인들의 실정을 참작, 지난8월15일 대구 대교구에 신부 파견을 의뢰했고, 대구 교구의 서정길대주교가 김용호신부를 추천파견시킨 것이다.

◆정관성몬트리얼지국장

몬트리얼 지역의 교민뉴스는 정관성 몬트리얼지국장이 담당하고 있읍니다.

기사가 될만한 소식과 공지사항이 있으신 독자께서는 정지국장에 연락바랍니다.

지국 주소는: 6715 P1 Villon Brossad P.Q. J4W 2R8 전화 (514)672-8399

강연과 영화의 밤

강사는 김창훈총영사·이해남박사

몬트리얼 한인회(회장 정희수)는 지난 14일 몬트리얼시내 마리아나·폴리스 대학 강당에서 약 250명의 교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남박사(서양학, 전 한양대 총장)와 김창훈 몬트리얼총영사의 강연과 국영화 "낮은데로 임하소서"를 관람했다.

이날 세인트·캐서린에 거주하는 이박사는, "신구사회의 십자로" 김총영사는 "에티켓과 매너"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했다.

하오4시반 문화영화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한인회 부인회가 마련한 간단한 식사로 더욱 풍성했다.

이날 강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국 불우청소년돕기 자선 음악감상회

몬트리얼 한인 연합교회(목사 배한국)성가대는 지난 20일 연합교회 웨슬리·홀에서 모국 불우청소년돕기 성금모금 자선 음악감상회를 가졌다.

교인을 대상으로 한 자선음악감상회에서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헨릭·쉐링 바이올린, 알렉산더·깁슨이 지휘하는 런던 교향악단 협연)및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C장조 작품 제14번(게오르고·솔티지휘의 시카고교향악단 연주)을 감상했다.

몬트리얼노장회 자선바자회

몬트리얼 노장회(회장 방용섭)는 회원들이 준비한 수예, 그림, 공작품및 음식들로 27일 상오11시부터 하오4시까지 시내 마리아나·폴리스대학에서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노장회가 정부의 도움으로 마련한 재봉틀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틈틈히 만든 수공품과 각 단체가 협찬한 상품및 한국식품들이 염가로 판매되는 자선바자회의 수익은 노장회 기금으로 사용된다.

노장회는 내년으로 예정된 록키산 관광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강연요지

"상공업 천시 말아야"

이해남박사

북미대륙에 첫 인상은 양반사회에서 쌍놈의 사회로 왔다는 느낌이었다. 북미사회는 나라없는 사회로, 북미인은 "내위에는 나무밖에 없다"고 살아온 민족으로 유유히 기다리는 대국심과 무한한 참을성을 가진 국민이다.

비가 오는날 차를 타고 가다 차 타이어가 플랫되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순경이 와서 정복을 입은 채 흙탕에 꾸부려 타이어를 바꿔주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었다. 순경뿐 아니라 정부관리의 친절은 캐나다에서 느끼는 큰 감명중의 하나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이든지 "NO"할 수 있는 것이며, 만장일치란 있을 수 없다.

회장 불신임, 회장 선거 무효화등 서로 소송을 하는 것은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유엔가입국 150여개국중 단 12나라밖에 없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란 영화가 있었지만, 우리의 조국은 한국이다. 우리가 백인이 되려고 아무리 분을 발라도 백인의 얼굴을 갖지는 못한다.

우리는 정부와 나라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바뀌지만 나라는 바뀔수가 없다.

이곳에서 살려면 서로 양보할 줄 알아야 하며, 서로를 축하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옛날 한국적 사고 방식으로 선비를 우대하고, 농상공업을 천시여기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부디 장사를 해서라도 돈많이 벌어 자비를 털어서라도 고국을 알리기 위한 농악 퍼레이드라도 해주길 바란다.

"동서양예절 잘알자"

김창훈총영사

뼈대있는 우리의 예절을 지켜가면서 이곳의 예절을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절의 관념은 3가지로 구성된다.

1.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예절.
2.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절.
3.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알게 되는 예절.(동양에 없는 것은 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의 바탕에는 기독교적 사상과 중세기의 기사도 정신이 흐르고 있다.)

◉우리에게 서투른 것은 레이디·퍼스트다. 서양예법에 부인, 변호사, 성직자는 바른 쪽으로 모시는 것으로 돼 있고, 단 차도에 접한 길을 갈 때는 남자가 차도쪽으로 선다.

◉남자는 여자들사이에 끼여 앉지 않는다. 걸어 갈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유는 한 여자에게 말을 할 때 다른 여자에게 등을 돌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운전기사가 있을 때는 운전석에서는 대각선으로 뒷자석이 상석이 된다. 한편 본인 자신이 운전을 할 때는 운전석 옆 좌석이 상석이 된다. 본인이 운전하는데 뒷좌석에 앉으면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기사로 격하시키는 일이 된다. 남자는 여자가 차를 탈때나 내릴 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예의이다.

이곳에서는 3, 4번 거절당하면 물러나야 한다. 한국식으로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식으로 가다가는 경찰신세를 진다.

이곳 사회는 레이디·퍼스트이지만 여성자신도 대우를 받으려면 우아하고, 총명하고, 단정한 모습을 위해 한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김장김치 주문환영
서부지점 ☎: 243-9544
해밀톤지점 ☎: 385-1485

이민의 문화적 사회적 자아를 밝혀가는
한국일보
533-2361

性敎育 모두 말합시다 ④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적당한 自慰… 죄책감 갖지않도록

성에대한 교육은 그것을 누가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크게다를 수 있다.

의사가 하게되면 자연 생체(生體)의 얘기, 즉 육체적인 성에관해 얘기를 하기 쉽다. 교육자가 취급을 하면 윤리적인 얘기로, 목사나 신부가 다룰경우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성 얘기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다 합해져야 비로소 올바른 성교육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성교육에 관하여는 최근에 이르러 부쩍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는하다. 그러면서 사실은 누구도 적극적으로 이를 파고드는 경우는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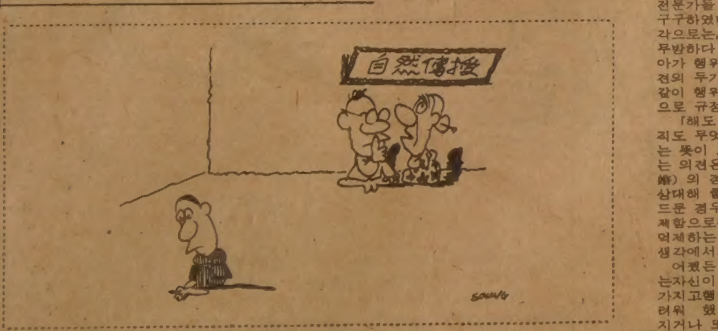
아직까지도 성은 재래식 그대로 자연전수(自然傳授)되는 것으로 만 여겨지고,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것이다.

이 자연전수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 즉 많은 경우에 그 지식들은 오식(誤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몇몇은 사람마다 그 의견이 구구하여 젊은이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선 자위행위의 예를 들어보자. 많은 젊은 남자들이 사춘기를 지내면 자위행위를 하게 된다. 간혹 여자의 자위행위도 있기는 하나 자위행위에 있어서의 남녀의 위치는 크게 다르다.

우선 남자의 행위에 대해 얘기해본다. 몇년전 신문에 14세의 소년이 자신의 자위행위에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성기를 잘라 버렸다는 기사가 있었다.

또 이경우 외에도 자위행위에 대한 죄악시때문에 성격이 달라지고 학교성적이 나빠지는등 남에게는 말도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있는 청소년들이 적지않은 것을 볼수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습기조차 한일이 바로 이 행위인것이다.

자위행위에대한 죄악감은 성행위 자체에 비할바가 안될만큼 크다. 하기는 성행위야 어느 연령이 되어 결혼을 하게되면 정식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이니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을 것이다.

자위행위의 경우는 언제까지나 비밀스런 일이고 따라서 이 행위에서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그것들이 어떤것들인지 알수 없기때문에 더욱 조심이 될수밖에 없다.

그동안 자위행위에 대하여는 전문가들 간에서도 그 의견이 구구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생각으로는, 첫째 자위행위는 해도 무방하다 하는 의견과 한걸음나아가 행위는 하는것이 좋다는의견의 두가지로 나누어져, 과거와 같이 행위를 하지않아야 하는것으로 규정짓고 있지는 않다.

「해도 무방하다」는 편은 아직도 무엇인가 제한을 하고자하는 뜻이 보이나, 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은 최근과같이 만혼(晩婚)의 경향이있고 또 성행위를 상대해 줄수있는 직업여성들이 드문 경우에 욕구를 지나치게억제함으로써 어쩌면 성의 발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같다.

어쨌든 남자의 경우 자위행위는자신이 스스로, 적당한 간격을 가지고행하게되면 이제까지 두려워 했던것같이기억력이 나빠지거나 또는 시력이 나빠진다는 경우는 있을수없을 뿐아니라 이에대한 죄악감을 가질필요가 전혀없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金貞泰(醫博)
【人口保健硏 사회개발부장】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게·TV판매
☎ 532-0210 손병헌

Young Sook's JEWELLERY
각종 보석
다이아몬드, 금, 은, 취급
품질보장/새로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전화문의 환영—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215 YONGE STREET (YONGE & QUEEN)
B) 368-7961
R) 690-5217
대표 민영숙

영숙 보석상
연말대매출
□다이아몬드 □흑진주 □오팔 □비취
□싸파이어 □에머랄드 □진주목걸이
□14K 이태리안 목걸이

교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저희 보석상이 날로 발전하여 많은 Stock을 갖고 더욱 봉사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일차 왕림하셔서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부모·형제·친지들을 위한 선물용으로는 값싸고 좋은 10K Gold 13불부터
(반지·목걸이·팬던트·팔찌)

선물은 마음의 대화입니다

영숙 Jewellery's는 Toronto Jewellery exchange 안에 있으며, Toronto Jewellery exchange는 토론토의 Discount Jewellery Store입니다.

5차5개년계획 대폭縮小

輸出·內需 균형유지

86년내 國際수지 正常化

輸出入 4百50億달러로

오늘 實務者회의…都賣物價상승 10%서 5%로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당초목표를 대폭적으로 축소조정, 당초 5백55억달러로 잡았던 목표연도(86년)의 수입규모와 5백30억달러로 책정했던 수출목표를 각각 4백50억달러로 줄여 86년이후 달성키로 돼있던 국제수지균형을 계획기간 이내에 앞당겨 실현시킬 방침이다. 당초 10.1%로 계획했던 계획기간중 평균도매물가상승률은 절반수준인 5~6%로 인하조정하고 6백45억달러로 예상되고있는 外債잔고(86년)도 2백억달러 가량 축소조정키로했다. 연평균7~8%로 돼있는 경제성장률은 당초목표 그대로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26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5차계획을 대폭축소조정키로 한 것은 계획이 작성된 지난해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교역량의 급격한 감소 ▲原油價의 하락 및 장기안정추세 ▲국내물가의 안정등 국내외경제여건이 현저하게 달라져 이에따른 계획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해외경기 전망의 불투명과 보호무역주의 경향, 국내산업구조상 문제점과 수출비용등을 감안할때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출과 내수를 병행 발전시키면서 축소균형을 이루는데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경제운용 방식을 전환키로하고 수입과 수출규모의 과감한 축소, 外債규모의 대폭적인 축소 조정, 국제수지 균형 및 물가안정의 조기달성등에 역점을 두어 5차계획 조정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차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수정하는 방식을피하고 계획기간중 연차별 經濟運用計劃및 中期經濟運用計劃을 통해 5차계획의 總量指標들을 전면재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83년도 경제운용계획수립때부터 이를 반영시키기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27일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열어 5차계획 總量指標조정내용과 이를반영한 83년경제운용 계획을협의, 마무리지을 예정이며 오는 2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政府試案을 확정한다음 12월초 공청회를거쳐 각계의견을 수렴해서 12월중순께 최종적인 조정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獨立기념관 부지 黑城山부근 議決

건립推進委, 평당 3천원에買入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26일 하오4시 서울中區 筆洞 한국의집에서 이사회를 열고 충남天原郡木川面 黑城山부근 지역 1백여만평 (국유지11만평외에는 사유지)을 독립기념관건립대지로 확정키로 의결했다.

독립기념관건립대지는 黑城山의 [illegible] 1천여만평중에서 건물을 세우기쉬운평1백만평을고른것으로新溪里, 南化里, 交川里, 校村里등 4개리에 걸쳐있다.

추진위측은 정부에서 1백만평의 대지를 평당 3천원씩 30억원에 수용할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립기념관추진위원회는①필요한경우 1백만평을 초과하여 땅을 매입해줄것 ②대지주변의 광활한 평지와 구릉 임야가 공원또는 전원의 適地로 판단되므로 기존사유재산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민족 교육 도장이 될수 있는 독립 공원으로 추진하여 줄것③대지로 수용될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것등 세가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所得稅率 16단계로 확대

財務委小委, 6개稅法案 조정대로 채택

국회財務委는 26일하오전체회의를열고 稅法심사小委(위원장金鍾仁의원)에서마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등 6개稅法개정안의 조정안을 그대로 채택했다.

이에앞서 小委는 지난25일 심의를 보지못했던 법안중소득세법부분에서 소득稅率구조를 16단계(정부안14단계)로 늘리고 稅率은 최저6%(1백80만원이하)에서 최고55%(6천만원이상)로 조정했다.

또 근로소득공제 限度額중 日用근로자기준을 1만4천1백원(정부안)에서 1만5천원으로 9백원 인상하고 配當稅額공제에 있어 배당금 1천만원이하는 8%(정부안6%) 1천만원초과 배당금은 4%(정부안2%)로 각각 上向조정했다.

또 小額株主범위를 현행대로 1억원(정부안3천만원)으로 늘리고 記帳의무면제대상자를 정부案의 8천만원에서 1억원(外形거래액기준)으로 인상했다.

小委는 법인세법에있어 특별부가세율을 부동산을 2년이상보유하거나 2년미만 보유한경우에도 25%(정부안 20%)의 세율을 적용키로하고 附價稅법안은 계류시키로 합의했다.

小委는 이밖에 ▲소득세초과공제액을 1만원 인상하고 ▲교육비 공제금액을 인상하며 ▲課標5천만원이하법인에 15%의 稅率을 적용하자는 야당측 주장을 少數의견으로 처리했다.

재무위는 이날 民正黨과民韓黨이 각각 제출한 「금융실명거래법안修正案」을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는생략한채 이를 금융관계법심사小委에 넘겼다.

財務委는 이날 금융실명거래법안과 은행법개정안등을 심사할 금융법안 심사11인小委를 구성, 오는 12월3일부터 심사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이날 民正黨측 제안자인 鄭順德의원은 「정부案은 83년1월1일부터 금융자산의 실명거래를 실시토록 돼있지만 그동안 저축성예금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實物투기가 우려되는등 우리경제를 어렵게하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점등을 감안, 全面실시를 86년1월1일 이후로 미루도록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民韓黨의 金台植의원은 修正案제안설명에서 「實名制실시를 뒤로 미루더라도 충격과 후유증은 그때가서도 피할수없기때문에 대가를 치르지금실시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國際라이온스 會長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26일 상오 청와대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에버레트·그라인드스태프회장(미국人)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한국라이온스협회의 鄭吉福회장이 배석했다.

自由中國畵家도

全斗煥대통령은 26일 하오 청와대에서 中華예술공사 任克重회장등 자유중국화가 일행10명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韓·中 두나라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문화분야에서 서로많은 영향을 끼쳐왔으나 앞으로도 민간차원에서 미술을비롯한 모든문화분야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증진되기를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화가들은 子女장학금 모금을 위한 韓中미술交流展 기념식참석과 자료기증을 위해 來韓중이다.

이자리에는 金準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이 배석했다.

◇首相指名 답례 日本집권 自民黨의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曽根康弘) 신임총재(64)가 26일 衆議院에서 日本제16대首相으로 지명받은후 축하박수에 손을들어답례하고있다. 【東京26日AP합=聯】

外相아베·藏相다께시다 內定

나까소네日首相, 組閣착수 官房고또·通産야마나까

니까이도 幹事長·다나까政調會長 유임

【東京=宋孝彬특파원】26일 하오 열린 일본국회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새수상으로 지명을받은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曽根康弘·64) 자민당 총재는 바로조각을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이날 당3역으로 니까이도(二階堂進) 간사장과 다나까·로꾸스께(田中六助)政調회장을 유임시키고 총무회장에는 후꾸다派의 호소다·기찌조(細田吉藏)를 임명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이어 이들 당3역과함께 조각에 착수, 관방장관에 다나까派인 고또다·마사하루(後藤田正晴·68)를 내정하고 외상에는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郎), 장상에는 다나까派인 다께시다·노보루(竹下登) 간사장대리를, 행정관리청장관에는 스즈끼派의 사이또·구니끼찌(齋藤邦吉)를 통산상에는 나까소네派의 야마나까·사다노리(山中貞則)를 각각 내정했다.

이날 중의원본회의에서는 재적5백5명중 4백97명이 출석, 나까소네총재는 과반수보다 38표를넘어 2백87표로 새수상으로 지명됐다.

아스까다(飛鳥田)사회당위원장이 1백2표 다께이리(竹入)공명당위원장은 34표를, 사사끼(佐佐木)민사당위원장은 31표를, 미야모또(宮本)공산당위원장은 29표를, 다가와(田川)자유구락부대표는 13표를 각각 얻었으며 무효 1표를냈다.

全대통령, 祝賀電文 나까소네 日首相에

全斗煥대통령은 26일하오 일본의 새수상으로 취임한 나까소네(中曽根康弘)수상에게 취임축하電文을보냈다.

「MX」生産·配置 반대

美의원들 잔여會期, 국방예산制動

【워싱턴UPI=聯】MX미사일의 생산및 그 배치방식에 반대하는 美의원들은 오는29일 의회가 3주간의 잔여회기를 개시하면 2천13억달러에 달하는 레이건대통령의 국방예산을 물고 늘어져 그들의 MX미사일 반대투쟁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하원뿐만아니라 아마도 상원역시 5基의 MX미사일시험생산에 근10억달러의 재원을 충당해야하는 낭비를 막기위해 레이건행정부의 국방예산에대한 수정안제출을 검토하고있다.

의회관측통들은 MX미사일을둘러싼 議會의 반발이 레이건대통령에게 가해질 군사부야에서의 도전중 가장강력한것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의회내의 레이건지지자들까지도 의회가 「잘해야 미온적인 정도」의 반응을보여왔다는 점을 시인했으며 하워드·베이커 상원공화당원내총무의 한 측근인사는 「우리는 국방예산을 둘러싸고치열한 싸움이 벌어질것을 잘 알고있다」고 말했다.

北傀·中共대립심화

망명 北傀軍간부 송환문제싸고

【東京=聯】反金正日派 북괴군 간부들의 중공망명과 관련, 북괴와 중공간의대립이 심화되고있다고 統一日報가 26일보도했다.

東京에서 발간되는 교포일간지 통일일보에 의하면 中共은 北傀의 송환요청을 거부했을뿐아니라 金正日·吳振宇일파에 의한 숙청작업의중지를 촉구했다.

北傀는 지난10월중순과 하순 人民軍부총참모장 金江煥중장과 警衛사령부장 玄峻極 등을 잇달아 北京에파견, 장성급을 포함한 망명군간부 80여명을 즉각 송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中共은 망명 군간부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송환요청을 거부했을뿐 아니라 오히려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숙청작업과 對南도발 정책을 즉각중지하라고 충고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幼兒교육法案 수정 文公委의결

국회文公委는 26일 幼兒교육진흥법안에 대한 심사小委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南北交叉승인개념 具體化

外務部 "主要共産國家가 한국承認해야"로

韓獨政策協서 밝혀

외무부는 「共産圈이 한국을 승인하지 않는한 西方진영도 북한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南北韓交叉승인 개념을 「주요공산국가들이 한국을 승인치않는한 북한과 공식관계를 맺지않아야 한다」는것으로 더욱 구체화시켜 이를 EC(유럽공동체)를포함한유럽국가들에게 적용키로했다.

이같은 정책의 구체화는 26일 개막된 韓獨정책협의회에서 독일측이 「앞으로 주요공산국가들이 한국에 대하여 공식관계를 수립치 않는한,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사전협의없이는 북한과 공식관계를 갖지않겠다」고 韓半島 정책에 있어서 우리정부와 협의를 하지않을것을 확약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협의회에서 한국측은 유럽에대해 한반도 정책에 관한 EC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해줄것을 희망했으며 독일측은 「中東정책에 있어서도 EC는 공동보조를 취하고있다」면서 적극 노력할것을다짐했다.

외무부는 이같은 우리정부의 방침을 英國, 벨기에등 유럽국가들과 정책협의회 채널을통해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記者의 눈

한국축구의 沈沒

한국여자배구가 뉴델리아시안게임 남북대결서 통쾌한 역전승을 거둔 25일 한국축구는 日本에 역전패, 예선탈락의 큰망신을 당했다.

4년전 방콕에서 남북한선수들이 공동우승, 양팀주장이 나란히 시상대에서포즈를 잡았던 장면이 엊그제같은데 4년이지난 지금 한국축구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日本에게도패해 도중하차, 축구팬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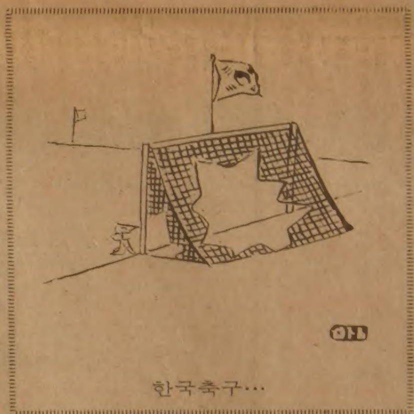
한때는 아시아의 축구왕국, 國技로까지 일컬어지던 한국축구가 어떻게해서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을까. [illegible]

[illegible] 축구협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安泰煥차장】

地平線

우리나라는 신흥공업국 또는 中進國으로 분류된다. 세계은행은 70년대 세계에서 가장 빠른속도로 高度成長을 이룩한 나라들중 韓國을 대표적 국가로 예거한 경우가 흔했다. 지난 십수년간 우리경제발전상을 나라안에서 보다 나라밖에서 더욱 진하게 실감케된 한국사람은 결코적지 않을 것이다. ▼좀 쑥스러운 얘기가 되지만, 地平子도 세계은행주최로 열린 세미나와 그밖의 미국학술세미나를 통해 우리 경제가 70년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것을 보다현실감있게 터득했었다. 韓國이 신흥공업국으로불리는 만큼 우리의경제, 사회발전도는 빠르다. 高成長하는 경제와 외형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선 사람의 의식구조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받지않을수가 없다. 최근 現代社會연구소가 내놓은 우리국민의식변화에 대한 표본조사결과는 많은 관심을 끈다. ▼그조사에 나타난 민주주의에 관한 가치관도 적이 흥미 롭다. 『경제발전에 다소 지장이 있어도 민주주의는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대목을 80%가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라면 상당한 비중이다. 60년대나 70년대 초였다면 모르긴 하지만 경제발전을 바라는데 관심과 비중이 컸었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中進國이 되어 훨더 잘 살수 있다는 전망이 보이는데서 경제와 더불어 정치문화적 가치에도 큰비중을 두겠다는 풀이할수 있다. ▼한데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수단에있어서는 우리국민이 일관성있고 확실한 견해를 아직 보이지 못한 것이 또한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듯 하다. 법에대한 무관심또는 불신도가 높다는것도 그중의 하나다. 그렇다 하여도 지난 1년사이 우리국민의식에 긍정적 변화가 일고있는점을 이조사는 명백히 지적했다. 『세상일들은 돈이나 권력있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된다』는데 대해 작년에는 60%가 동의했으나 올해에는 54%로 줄어들었다는것이다.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데 대한 찬성률도 1년간에 8%나 감소되어 사리와 질서를 찾고있음을 나타 냈다. 또『부모와 생각이 달라도 부모에 복종한다』는 소견이 47%나 된것도 대견스럽다. 원래 국민의 의식구조란 성질상 그리 쉽고 빨리 변하는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동기간할수있던 작년 1년사이에 준법정신이나 정의사회구현노력에 국민들의 의식이 긍정적으로 크게 변해간다는 이번 조사결과는 일종 고무적이라고하지 않을수 없다.

社會漫評



한국축구…

한국일보

구리리孫明근建술한 新56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초 535-0028 535-7200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광고신청

533-2361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6월.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444-1136

오리엔탈·파레스

529 BLOOR ST. W. TOR. 533-3545·6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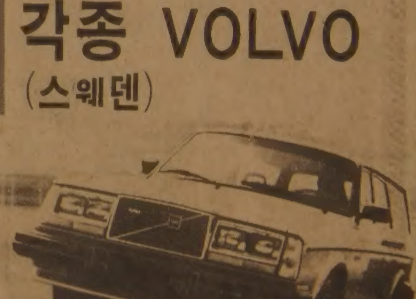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토론토 한국일보: 533-2361-4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왜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751-7664 (로렌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伊서 武器密賣團 검거

세계 最大조직 中東에공급 41명구속

【바레세(이탈리아)UPI=聯合】 이탈리아의 수사관들은 여러해동안 수백만개의 무기를 중동에 보내주고 그 대가로 헤로인등 다량의 마약을 이탈리아에 밀반입해온 『세계 최대의 불법무기 거래조직』을 검거했다고 이 사건심리를 맡은 갈로·팔레르모판사가 24일 밝혔다.

팔레르모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레세시 부근 밀라노에 본거지를 둔 이 불법조직이 중동에 보낸 각종 무기 가운데는 헬리콥터와 서독제 레퍼드 탱크·기관총등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팔레르모판사에 의하면 이 조직은 중동에 무기를 보내준 대가로 터키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의 대리인들을 통해 헤로인등 마약을 이탈리아에 들여왔다.

팔레르모판사는 이들 마약의 대부분이 북유럽으로 갔으나 일부는 남부이탈리아와 마피아가 수백만달러상당의 마약을 美國에 팔아넘기고있는 시칠리아섬으로도 보내졌다고 말했다.

팔레르모판사는 이 범죄조직원중 41명을 구속했으며 내년2월에 이들에대한 재판을 시작할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1백59명의 용의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들에 대한 검거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지어질것이라고 밝혔다.

關係개선 蘇태도에 中共, 첫反應보여

【北京25일=聯合】 중공은 25일 신임 소련공산당서기장 안드로포프의 對중공관계개선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나 이같은 양국관계개선의 진전이 소련측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55명의 중앙위원 PLO앞날 협의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을비롯, 팔레스타인게릴라 단체의 모든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LO의55인 중앙위원회회의가 25일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개최됐다. 【다마스커스25日 AP電送=聯合】

이軍司令部 기습

레바논 民族戰士團, 시돈市서

【베이루트 WAM=聯合】 일단의 레바논민족저항세력 戰士들이 24일밤 레바논 남부 시돈시에 있는 이스라엘군사령부에 대해 대담한 기습작전을 감행했다고 팔레스타인통신(WAFA)이 25일보도했다.

WAFA는 레바논 민족전사들이 수류탄과 자동화기를 이용, 기습작전을 감행했으며 이공격으로 수명의 이스라엘군이 부상했다고말했다.

WAFA는 이공격이 있은 직후 시돈의 이스라엘점령군 사령부로 이어지는 도로들을 봉쇄하고 수십명의 민간인을 검거, 연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또다른 한레바논민족저항부대도 24일밤 티레북부에서 한이스라엘군 순찰대를 매복, 기습하여 수명의 이스라엘군이 부상하는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의 마음

프리미엄

요즈음 신문이나 TV를 보면 강남(특히 개포동)의 아파트 투기와 프리미엄에 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우리도 먹고싶고 입고싶은 욕망을 줄이고 어렵게 개포2차 주공아파트 15평을 당첨받았다. 그때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 잠을 이루지 못한채 새어서 밤을 세웠었다.

16만원 받던 그이의 공무원 월급에서 10만원 재형저축을 붓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며 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후 마침내 행운은 우리를 찾아주었다. 힘들게 마련한 집이기에 나 개인의 욕심으로 볼때 내집값이 올라가면 갈수록 즐거웠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신문에 오르내리는 「프리미엄…」하는 문제는 20평도 못되는 소형아파트에 있는것이 아니라 4천만원 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었던 여원도 훨씬 넘는 60평짜리 아파트라네 나로서는 상상도 할수없는 거액이다.

복부인 이라는 분들이나 같은 서민의아내보다 어디가 특히 잘생겼기에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있는 지내집이 자랑스러운것도 잠간이고 주눅이 든다.

우리는 기름 보일러도 부담스러워 연탄보일러만 찾았지만 이 도시에는 한평의 땅도 자기소유가 없는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자랑스럽던 15평우리집도 이제는 누구에게 떳떳이 말하기가 부끄러워졌다. 그아파트조차 어렵게 계약금만 치르고 나머지 돈은 지불하지도 못한채 내년2월에나 대부받아서 완불할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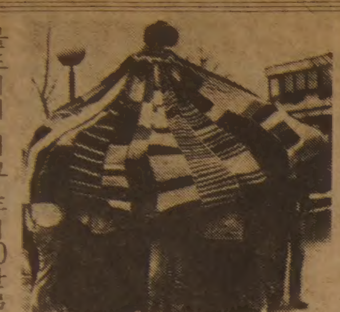
작은집조차 제때에 못내는 내손은 「큰손」도「작은손」도 못되는 「아기손」인것만 같다. 【김미라·안양시 안양2동18의84】

海外토픽

볼드리지 최고 年백70만弗

★美장관들 年俸제외수입

美國정부의 주요장관들의 연간수입은 얼마나 될까?



◇12kg짜리 뜨개질 털모자 기네스·북에 오르기위해 12kg의 털실로 뜨개질을하여 초대형털모자를 짠 西獨의 남녀학생 30명이 자신들이 짠 털모자속으로 들어가서있다. 【코르바호(西獨) 25日 UPI=聯合】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잭·앤더슨은 25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자신의 칼럼에서 현직 주요장관들의 연간수입과 부채를 공개했다.

장관급의 연봉은 6만9천6백30달러인데 연봉을 제외한 연간수입은 맬컴·볼드리지상무장관이 1백50만~1백70만달러로 가장많고 새뮤얼·R·피어스 2세 주택도시개발省 장관이 4만3천~9만7천달러로 가장 적다.

주요장관의 연봉을 제한 연간수입및 부채는 다음과 같다.

▲조지·슐츠국무장관=수입 1백10만~1백20만달러·소유주식 2백만~3백20만달러, 부채 11만5천~30만달러.

▲캐스퍼·와인버거국방장관=수입67만6천~1백만달러·소유주식 2백40만~3백40만달러 부채없음.

▲도널드·리건재무장관=수입74만6천~81만4천달러·소유주식85만~1백38만달러.

▲윌리엄·프렌치·스미드법무장관=27만3천~51만달러·소유주식 2백만~3백40만달러·부채 1만5천~5만달러. 【워싱턴=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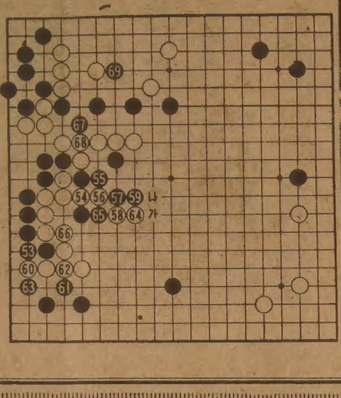
말하는 카메라

★日후지필름 12월 市販

일본 후지(富士)필름회사는 세계최초의 『말하는 카메라』를 개발, 오는12월1일부터 국내시판에 들어간다.

회사대변인에 따르면 LSI(라지·스케일·인테그레이티드)회로가 내부에 장치돼있는 이 말하는 카메라는 사진을 찍을때 여자목소리가 흘러나와 예건대「플래시를 사용하세요」「필름이 다됐어요」등 사용자들에게 지시사항을 말해준다는것. 【東京=聯】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 第4譜 53~69 (각5시간·덤5집반)
白(4段)姜 勳〈1勝〉
黑(4段)李 相 澈〈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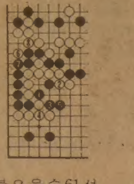
黑53까지 된데서 당장 눈에띄는 것은 黑66으로 끊기는 곳이다.

그러나 姜4단은 선뜻 白66을 두려하지 않고 白54로 째더니 이하 58까지 서슴없이 두었다. 위험천만인 斷點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끌고나오자면 여간만한 힘이 없이는 언감생심이다. 李4단도 전투형이지만 姜4단도 잔수에는 자신이있다. 白60으로 막은것도 일관된강수.

黑은 66자리를 끊고싶다. 그렇지만 金秀壯5단에 따르면 참고도처럼 白8까지 黑이 전멸을 당한다.

李4단역시 감히 끊지를 못하고 우선 黑61을 선수한다음 63으로 모양을 붙였는데 61도 실은 직접 63이라야 옳지 않느냐는 국후중론이다.

左上에 새戰場



李4단은 좌상쪽에서 작전을 실패하더니 냉정을 약간 잃은느낌이고 상반적으로 姜4단은 기세를 올리며 白64의 강수를 던진다. 이것으로 黑65를 유도하고 白66. 여기서 黑은 「가」에젖혀도 白「나」로 끊겨서 당장은 무리.

이리하여 黑67에서 69로 다시금 전단을 모색했는데 과연 어찌될것인지. 白에도 만만치않은 반격수가 있을법 하다. 【一凡】

나까소네政權

〈下〉

吳越同舟의 擧黨체제

非正統派론 4번째 首相

복잡한 派閥、非主流협조가 順航의열쇠

◇主流3派의 굳은악수 지난24일하오 예비선거의 개표직후 스즈끼, 다나까派의 대표들과손을맞잡고 결속을 다짐하는 나까소네。 나까소네의 당선을 축하하는 主流 3派의 굳은 악수였다。

나까소네(中曽根)정권이 26일 내외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 나까소네내각은 역대의 어느정권보다 매派에가깝고 자민당에서 비정통파라는데 특색이 있다.

자민당 27년의 집권기간중 소위 요시다(吉田)학교출신 비정통파가 집권한것은 하도야마(鳩山)이시바시(石橋) 미끼(三木)에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런관점에서 나까소네내각은 일본이 서방진영의 일원으로서 좌표를 설정하고 對美외교의강화와 對韓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것으로 예견된다.

나까소네수상은 행정개혁과 재정재건 對美외교의 강화, 록히드재판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기위해 파벌안배에 의한 擧黨제제를 구축할수밖에 없었다.

간사장을 비롯한 黨3役은 다나까(田中) 스즈끼(鈴木) 후꾸다(福田) 파등3파벌에 안배했으며 내각의 중요포스트인 外相 大藏相 通産相 그리고 官房장관등은 나까소네파를 더하여 4大파벌이고루차지했다.

대체로 20개의 각료는 파벌의 세력분포에따라 안배, 균형내각을 발족할수밖에 없게됐다.

당내의 5대파벌중 4번째의 세력인 나까소네파에서 수상자리를 차지할수있었던것은 다나까軍團과 스즈끼파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한 것이기때문에 이들에 대한 논공행상은 물론이고 어제의 적이었던 후꾸다, 고오모또, 나까가와 파등 비주류까지도 끌어들여, 협력을 얻지못하면 어려운 정국을 헤쳐나갈수 없다.

예비선거에서 大敗한 비주류도 거당체제라는 명분밑에 나까소네정권에 협력할수밖에 없으나 吳越同舟격으로 기회만있으면 黨權을 기도할태세를 갖추고있어 나까소네정권의 불안요인이 되고있다.

비주류가 나까소네정권에 대해 제일 비난을퍼붓고 있는 것은 다나까파벌에대한 우대와 傾斜이다. 黨權을 장악하는 간사장에 니까이도(二階堂)씨가 유임되는등 다나까前수상의 자민당에대한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대해 비주류는 늘 경계태세를 보이고있다.

지난11월19일 나까소네수상을 지원하는 파티에서 다나까前수상은 『여기있는 나까소네君은 2~3일 있으면 수상이 될사람이다. 참의원과 중의원동시선거가 실시되면 86년까지 3년동안 나까소네君이 집권하여 현안문제를 모두해결할수 있을것이다』고 말해 내년6월께 국회해산을 예견함으로써파문을던졌다.

다나까씨의 국회해산전망발언은 나까소네 수상에 대해 내년7월 실시될 참의원선거에 발맞춰 중의원을 해산, 衆·參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라는 압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나까씨가 록히드사건으로 형사피고인이되어 내년2월 구형이 내려지게돼있어, 내년이 다나까로서는 정치인으로서 사느냐, 죽느냐하는 판가름이 날 중요한 해이기도하다. 다나까씨로서는 이난관을 극복하기위해 총선거로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 자민당이 압승하고 자신도 당선돼 올라오면 록히드사건에 대한 정치적문제는 깨끗이 정리될수 있다고보기때문에 국회해산을 나까소네 수상에게 넌지시 종용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자민당내의 파벌역학으로보아 나까소네수상은 다나까와 스즈끼등 주류에기울어지지않을수 없다. 그러나 나까소네정권이 주류에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후꾸다 고오모또등 비주류가 강력히 반발할것이 예상되어 전국은 불안해질수밖에없다.

그렇다고 나까소네수상이 다나까파를 멀리할경우에는 지지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려 설자리마저 없게되는 이럴수도 저럴수도없는안팎곱사등의꼴이된다.

자민당의 27년史는 한마디로 파벌의 抗爭과 離合集散의 역사로 엮어졌다.

창당초기에는 정통파와 비정통파의 권력투쟁이었으며 사또(佐藤)이후에는 미끼, 다나까, 오오히라 후꾸다의 원한의항쟁시대로서 정통파들의 분열시대였다.

나까소네정권도 사실 다나까와 후꾸다의 대결선상에서 탄생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자민당의 파벌에는 크게 두갈래의 흐름이 있다. 전후일본을 부흥시킨 요시다수상을 정점으로한 保守정통파와 反美민족주의를 내세운 하도야마수상을 머리로하는 비주류로 나누어진다. 정통파는 요시다↓기시(岸)↓이께다(池田)↓사또↓다나까↓후꾸다↓오오히라↓스즈끼로이어졌고 이에반해 비정통파는 하도야마↓이시바시↓미끼↓나까소네로 내려왔다.

현재 자민당의 5대파벌중 다나까, 스즈끼, 후꾸다등 3대파벌은 정통파이고 나까소네, 고오모또는 비정통파이다.

자유당의 초대총재인 하도야마씨는 맥아더사령부에의한 공직추방으로 총재직을 요시다에게 넘겼다.

보수정통파는 전후일본이 나가야할 진로로서 새평화헌법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의한 美·日안보체제를 주축으로 방위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를 부흥시키자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반해 하도야마씨는 공직추방에대한 반감등으로 일본民主黨을 새로 결성하고 요시다씨의 親美노선과 安保論에 비판적인 입장에 섰다.

요시다이후 자민당의 보수정통파는 고도성장을 이룩, 장기집권에 들어갔으나 자체파벌간의 반목으로 세포분열을 해왔다.

64년 이께다가 3選을하려하자 사또가 후꾸다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뇌득했다. 「포스트사또」를에워싸고 72년의 총재선거에서 사또정권의 두기둥이었던 다나까와 후꾸다가 정면대결하여 결선투표끝에 다나까정권이 탄생했으나 이때부터 다나까와 후꾸다는 10년동안 정권획득을 둘러싸고 항쟁을 벌여왔다. 78년이께다파를 계승한 오오히라간사장이 다나까파의 지원을얻어 현직수상인 후꾸다를눌러 정권의좌에 올랐다.

후꾸다와 오오히라는 「40일항쟁」을 벌인 끝에 79년 후꾸다, 미끼양파가 결석한 가운데 오오히라내각의불신임안을 통과시키는등 보수정통파의 싸움은 그칠날이 없었다.

다나까정권은 스즈끼정권에 이어 다나까, 스즈끼, 나까소네등으로 新主流를 형성하여 행정개혁과 對美외교의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메아리

落葉의 一生

가을이 깊었다. 가로수에는 한둘씩매달렸던 마지막잎새들이 자고나면없다. 가지들은 앙상해졌다. 가을한철 낙엽들로 어지럽혀지던 鋪道가 깨끗해져간다. 겨울이 다가온 것이다.

여름 한철동안 그렇게 무성하던 나무잎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盛裝을 벗어버린 裸木들. 잎은 져서 낙엽이되고 낙엽은 쓸려 어디론가 갔다. 가을을 보내며 실없이 그 낙엽들의 행방이 궁금해진다. 잎은 세들면 낙엽이 되고 낙엽은 죽어 무엇이 되는가.

낙엽이라면 절로 읊조려지는 노래가 프랑스의 샹송 「枯葉」이다. 가을들면서 우리 TV에서도 이 노래를 가끔 들을수 있었다. 파리에서 쥘리에트·그레코가 리사이틀을 할때면 절대로 이노래를 빠뜨리지 않는다. 작년 이브·몽탕이 오랜만의 공연을 가졌을때에도 청중의 갈채를 가장많이 받은것이 이 노래였다.

「枯葉」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면 파리의 낙엽은 별나기라도 한것일까. 뤽상부르공원에서 잎사귀큰 마로니에의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것을 보고있으면 황소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는듯한 哀愁를 느끼게도한다. 그러나 파리라고해서 낙엽이 모두 마로니에인것은 아니다.

파리에는 10만그루의 가로수가있다. 공원이나 공동묘지의 나무까지 합치면 16만그루나 된다. 가로수가 있는 길은 총연장이 3백50km다. 樹種은 가장 많은것이 플라타너스로 38%를 차지하고 마로니에는 그 다음이어서 13%가량이다. 그밖에는 보리수 포플러등이 있다.

1920년께부터 유럽에는 느릅나무가 가로수로 널리 퍼졌지만 虫害가심해 근년에는 자꾸 줄어가는 추이다. 파리에서는 해마다 2천그루의 가로수가 죽어 새로 심는다. 그때마다 새로운 樹種을 들여와 현재는 독일나무, 일본 벚나무등이 인기다.

파리의 이 가로수들에서 해마다 가을동안 떨어지는 낙엽은 양이 1만2천입방미터. 8톤트럭 1천5백대분이다. 1612년 파리에 처음 가로수가 심어진 이래 낙엽은 줄곧 비로 쓸어져왔다. 그러던것이 3년전 「진공기 낙엽 청소차」라는것이 등장했다. 진공청소기가 달린 트럭이 단번에 20입방미터의 낙엽을 쓸어담아버린다. 샹송「枯葉」의 가사에는 「낙엽은 삽에 쓸려 담겨지고…」라는 귀절이 있다. 새 청소차가 등장함으로써 이 詩情마저 쓸어가버렸다고 당시 할일없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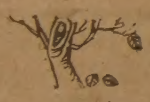
그러면 이렇게 청소된 낙엽은 어디로 가는가. 파리교외에는 세군데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낙엽은 여기서 불태워져 전기가 되고 증기가 되어 파리의 도시난방에 이용되는 것이다.

서울에는 17만주의 가로수가 있다. 플라타너스가 7천여주로 가장 많고 수양버들, 은행나무의 순이다. 예년에는 보통수천그루를 신설가로에 심거나 補植을 해왔는데 금년에 올림픽에 대비해서 7억여원을 들여 2만1천주를 새로 심었다. 가을이되면 1천1백41km의 길에서 2천5백명의 가로청소원들이 낙엽을 쓸어낸다. 그양이 모두 얼마인지는 시청에 집계된것이 없다. 서울의 하루 쓰레기 수거량이2만2천톤이요 그중 70%가 연탄재니 나머지 30%가운데 낙엽이 들어있다. 낙엽은 모두 蘭芝島의 매립지에 갖다버려진다. 만인의 가슴을 심란케한 낙엽은 결국 이렇게 썩어가는것이다.

최근 일본東京에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이생겼다. 이 에또(江東)청소공장은 하루 1천8백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여 1만5천kw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3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수있다.

서울市에서도 쓰레기소각장을 세울 계획은 하고있으나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 시설의 비용이 5천만원이나 되어 내년 예산에 우선 용역비만 計上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옛날에 낙엽은 부엌 아궁이로 들어가 난방을 해주었다. 가랑잎 떼굴 떼굴 어디로 굴러가느냐하면 벌거벗은 몸이 하도 추워서 따뜻한 부엌을찾아간다고 동요로 노래되던 낙엽이다. 오늘의 낙엽이란 것도 결국은 제 몸을 살라 각가정을 따뜻이 데워주는것이 운명인줄을 알겠다.



金聖佑 〈編輯委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78〉

朴婉緖 作 / 金光培 畫

부드러운 겨울④

멀리 은빛으로 번들대는 강을 향해 흘러내린 동네가 한눈에 들어왔다. 강은 지금 얼어붙은 걸까? 흐르는 걸까? 낯익은 풍경이 새삼스럽게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있다.

마당에서 문득 갈나무를 우러르던 유기사 생각이 났다. 그때만해도 만추(晩秋)였던가? 맨 꼭대기 가장귀에 몇닢 남은 잎이 몇개 나마있었다. 그 후 그 갈잎마저 떨어졌는지, 저절로 없어졌는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가장귀를 온통 드러낸 겨울 갈나무는 잎이나 열매가 무성할 때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고 그 밑에서 서성이는 유기사의 모습은 생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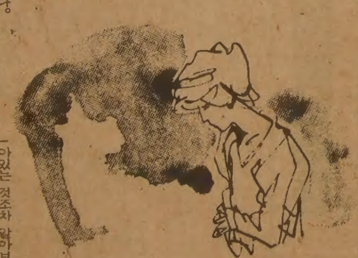
그러나 그녀의 퇴폐한 관능에 마지막 생기를 불러일으킨 그의 돋보였고 기름때 묻은 손을 애무해보고싶단 싱싱한 욕망은 되살아나지않았다.

수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꺼리는 것처럼 소리 죽여 가만가만히 아이들 방 옆에 붙은 남편의 서재의 문을 밀었다. 오래 비워놓았기 때문인가, 쾌적한 실내온도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썰렁했다.

그에게 있어서 나는 뭔가? 수지는 마치 그녀사이에 아내와남편이라는 그들이 인정하고 또 세상이 인정한 관계말고 딴 관계가 있었던양 간절히 이렇게 생각했다.

서재는 기욱의 전공이나 취미를 짐작할수없을만치 공식적으로 꾸며져있었다. 좀 색다른 게 있다면 이태리산 대리석이라는 다탁과 제주도에서 사들인 약장과 책장위에 장식해놓은 몇점의 단계석 벼루정도였다.

수지는 쑥빛바탕에 자연의 무늬가 흡사 우리의 산수화를 방불케하는 대리석다탁을 보얗게 흐려놓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닦아봤다.



수지는 기욱이 그것을 얼마나 고가로 사들였는지 알고있었다. 그녀는 그게 별로 좋은줄 몰랐기때문에 그런 고가를 아낌없이 던져가며 그것을 손에넣은 기욱을 이해할수가 없었다. 더욱 이해할수가 없는것은 그 물건에 대한 기욱의 돈 아까운줄 모르는 애착이 그 물건을 손에 넣자마자 시들해져 버리는 거였다. 그 물건을 친구네서 발견하고 탐나 욕심이 생기고 양도해달라고 애걸하고 얼마면 양도하겠느냐고 흥정을 걸고 경쟁자도 없는데 경매 붙이듯이 혼자서 자꾸 값을 올려 놓고 그 물건을 손에 넣을때까지의 기욱의 그 물건에 대한 소유욕은 아무도 못말렸다.

그러나 그 물건이 마침내 그의 소유가 되어 서재의 한자리를 차지하자마자 그물건의 신세는 마지못해 들여놓은대연백과사전의 신세와 별로다르지 않았다. 가끔 어루만져보기는커녕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것조차 알아본 것같지 않았다. 가끔 누구한테 자랑하는 법도 없었다.

약장이나 단계석 벼루 그밖의 몇점안되는 고서화들을 인수한 경위도 그와 비슷했다. 인수할때까지의 열정에 비해 인수한후의 무관심은 구박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비정해 보였다.

언젠가 그런 그의 성미를 수지가 비양거린적이 있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탐이 나서 돈 주고 손에 넣었으면 그 다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하면 그만이지 그 이상 뭘 어쩌란 말야』

수지는 문득 이태리산 대리석 다탁의 신세와 자기 신세가 비슷한 것처럼 느꼈다. 그런 느낌은 고약했지만 한번 사로잡히기가 잘못이었다. 벗어날수가 없었다. 그녀는 기욱의 그런 변덕과 무관심에 대해 참을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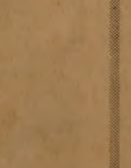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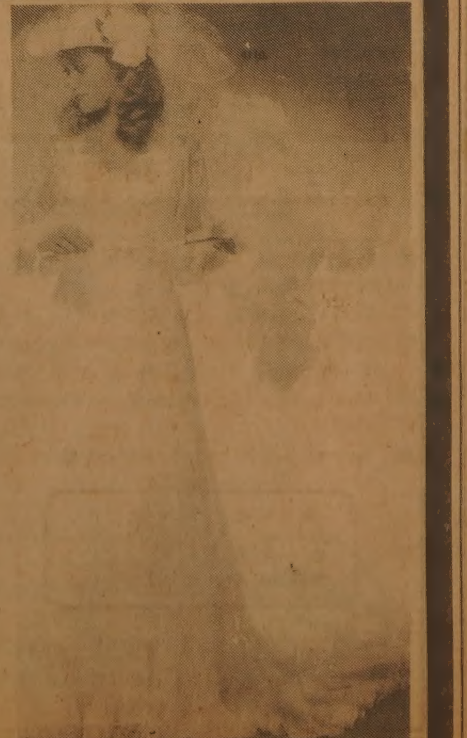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셋방점포」는 不安하다

賃貸借 보호법에 虛點

주택과 함께 保護받아야

전물所有主 바뀌면 쫓겨나기 일쑤

전세살이 서민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헛점이 있다。 살기위해 주택에 전세를든 서민은 보호가되나 같은처지로 점포를 전세내 장사를하는 서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돌아가지않는 문제를 안고있는 것이다。

◇점포의 전세권도 큰사회문제의 하나다。 점포를 전세내 장사하는 상인들은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수없어 시장주인이나 건물주의 횡포에 대항하기가 힘든 형편이다。

시장에서 조그만 점포를세내 살고있는 시장상인들 서민들은 『일정한 금액을내고 전세를 들기는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마찬가지 처지인데 임대차보호법이 「주거자만 보호한다는 것은 법의 설립취지에도 어긋날뿐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시장주나 건물주의 횡포를 많이 받는 영세전세점포주들도 법의 보호를 받게해달라』고 건의하고있다。

현행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범위를 주거용건물로 한정시키고있고 법무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이법의개정안에서도 적용범위를 점포겸용주택으로 확대했을뿐 「전용점포」는 제외하고있다。

영세상인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대부분 전세등기를 하지않고 입주했다가 시장주나 건물주의채부로 소유주가 바뀌거나 경매에붙여질 경우 제3의 채권자(새 소유자)에게 대항력이없기때문에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받지못하고 쫓겨날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임대주가 수시에 과다한 전세보증금인상을 요구하거나 비위에 맞지않는 것을 강요할때도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경우 세든 사람이 주민등록만 마치면 전세등기가 된것으로 간주해 전세입주자를 보호하고 있는데다 전세기간의 일방적단축이나 계약해지、전세보증금의 과다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또 새로 개정될 법률에는 전세보증금을 최우선변제토록해 무주택의 주거생활을 보호하도록 하고있다。

점포에 세든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경우 전세든 영세상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거나 영업감찰을 냈을때 전세등기가 된것으로 간주해 보호할수있다。

한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했던 판검사들은 점포도 보호대상으로 할것을 당초 검토했으나 ◀전세주택의 경우에 하는 주민등록같은 공시(公示)방법이 점포의 경우엔 마땅치않고 ◀법취지가 무주택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므로 소형점포의 경우엔 법명칭을 바꾸거나 새법을 제정해야하며 ◀대형건물의 한층을 빌어쓰는 대회사와 소형점포를 빌어쓰는 영세상인을 구별하기위한 입법기술상의 문제때문에 우선적으로 주거용건물(개정때 주택겸용점포까지 확대)로 국한한것이라고 밝히고있다。

이처럼영세상인을 보호할 법적장치가 없기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상인도많다。

지난 2월부터 서울鍾路4街 세운상가 2층에 보증금 4백만원에 점포하나를 세들어 영업을하고 있는 全德順씨(36·여·東大門區墨洞47의30)는 지난 8월 자신과 계약을 했던 사람의 채권자가 나타나 점포를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았다。 부랴부랴 계약을 했던 李모씨(48)를 찾았으나 2억원의 빚을 지고 달아난 상태였으며 李씨는 소유주인 K개발로부터 점포3개를 세내 다시 (全씨를 포함한) 다른 3명에게 세를 내준 사람으로 밝혀졌다。

월15만원의 임대료를 내온 K개발측에 문의해봤으나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는것。 全씨는 법률사무소등을 뛰어다녀보았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런 피해는 대단위시장등에서 여러개의 점포를 시장측으로부터 세내 다시 세를 놓는 임대주들의 보증금、임대료의 과다인상으로인한 분쟁이 연례행사처럼 일어나기도 한다。

서울 東大門區墨洞 세진종합시장의 경우 1백60여입주상들이 소유주의 부채로 보증금 7억여원을 되돌려받을수 없는 상태가되어 지난5월 집단농성을 벌였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태는 시장주 李吉雄씨(43)가 시장건물의 감정가 27억원보다 5억원이 많은 32억원의 부채로 공매처분될 상태이기 때문。

지난81년11월 東大門區里門洞 里門시장 점포를 보증금 1백30만원에 1일1천7백원을 내기로하고 세냈던 [illegible](56·東大門區里門2洞257의131)는 보증금도 받지못한채 부인이식당에서 식모살이를하는 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있다。

올해어 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전세입주자관계 8백50여건중 20%인 1백70여건이 상가문제로나타났다。

이에대해 成均館大법대 高翔龍교수(민법)는『현행법상 점포임대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입주자는 별수없이 나가야하거나 임대주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등을 올려주어야 하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영세상인들를 보호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YMCA시민중계실은 27일하오 전세입주자문제 특별법률상담을 열계획인데 시민중계실에 의하면 올한해동안임대차보호법 문제로진정을 해온것은 모두9백95건으로 이중20%가 점포문제로 인한다툼 이라는것이다。 【鄭在龍기자】

서울大 脫落학생 전원救濟

卒業정원基準바꿔 2학년 轉科·轉學으로

[illegible]는 서울大 현 2학년 학생들 가운데 내년 3학년 진급때 강제탈락대상자 거의가 학칙에따라 전과·전학등으로 구제될수있다。

서울大는 이에따라 졸업정원제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탈락기준을 학과별은 계열또는 단과대별로、전공별 남녀별은 학과별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서울大 학칙에 따르면 전과·전학은 3학년 1학기초에 한번 할수 있도록 돼있는데 현2학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재적학생수가 졸업정원수에 못미치고 있어 전과·전학이 가능하다。

서울大 관계자에의하면 현 2학년생은 10월말현재 4천5백78명으로 전체적으로는 졸업정원의 1백10%인 3학년 진급정원 5천5백22명에 9백44명이 모자라는 상태이나 과별로보면 졸업정원의 1백10%를 초과하는 학생수는 25명뿐이라는 것이다。 학과별로 보면 사법학과2명、의예과2명、미대회화과 6명、성악과5명、작곡과5명、기악과5명이다。

서울大관계자는 또 이들학생들이 전과·전학할 경의도 동일계열에 자리가없으면 탈락학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내년 大入銓衡料 올려

最高 8천원으로

文敎部승인

문교부는 26일 내년도대학입학전형료를 최고 8천원으로 한정시켜 일부대학의 인상요청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漢陽大등 일부사립대학은 금년의 7천원에서 6·7%가 오른 7천5백원을 받게됐고 5천원이던 서울대는 1천원이 많은 6천원으로 오르며 이에따라 모든 사립대학은 7천5백~8천원으로 결정됐다。

문교부의 인상억제에 따라 종전에 8천원이던 高大·世宗大의 내년 전형료는 같은 액수로 동결됐으며 국립대학의 경우는 종전에 6천원미만이던 곳이 6천원으로、그 이상이었던 대학은 역시 6천원으로 끌어내려 같은 액수로 조정됐다。

한편 예능계 실기고사료는 금년도 2천~5천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모든대학에 대해 3천원을 넘지못하도록 조정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鄭載巴군 保釋 허가

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과관련、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鄭載巴피고인(22·仁荷大행정학과3년)에게 26일 보석허가가 내려졌다。

이사건 항소심재판부인 서울고법형사3부 (재판장 李濟九부장판사) 는 이날상오 변호인단이 낸 보석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보석금3백만원에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항고포기여부를 27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항고기간은 오는29일 자정까지이다。 검찰이 항고할경우 사건기록이 서울고검、대검을 거쳐 대법원까지 송부되는동안의 법정기간이 있기때문에 대법원의 심리때까지 계속 구속상태에있게된다。

검찰의 항고포기로 석방될경우 鄭군의 주거는 서울江南區驛三洞633의5 자택으로 제한된다。

◇자수한 權炯坤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光州 美文化院 방화미수범 水原서 친구권유받고 自首

【光州】光州미문화원 방화미수사건 수사본부는 사건의 범인 權炯坤씨(21·光州市北區新安洞649의5)가 25일 하오6시께 水原경찰서를 통해 자수、하오11시께 光州로 압송돼왔다고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범인權씨가 평소 가난으로인한 사회적불만을 품어오다 지난20일밤 술을마시고 취중에 화염병을만들어 미문화원에 투척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의하면 범인權씨는 사건당일밤 10시30분께 光州市北區林洞 L주유소에서 휘발유 6백원어치를 구입、신문지를 얻어 빈주병을 막은후 택시를타고 하오10시40분께 光州市東區黃金洞소재 대흥슈퍼마키트에서 성냥1갑을 구입、밤11시께 병마개에 불을 붙인후 문화원 강당 옥상에 던졌다。

범인權씨는 화염병을 던진후 1백50m가량의 골목길을 빠져나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23일아침 사건이 신문에 … 順天을 거쳐 하오8시30분께 서울龍山행 보통열차편으로 서울에 도착、24일상오9시께 水原에 살고있는 친구 郭모군(23·S농대교육과3년)을 찾아갔다가 郭군의권유로 水原경찰서에 자수했다。

農協、農資金 회수위해 무더기 支給命令 신청

大邱地法에 2백件

【大邱】농협이 농민들에게 대여해준 농자금회수를 위해 농자금 지급명령신청을 무더기로 법원에 내고있다。

26일 대구지법에따르면 이달들어 이날현재까지 대구지방법원관내 각농협에서 농민들을 상대로낸 농사대여금지급명령신청건수가 2백4건에 이르고 있다는것。

慶山郡진양농협단위조합이 69건으로 가장많고 高靈郡지부31건、慶山郡지부24건、永川郡북안단위조합23건、경북도지회20건、大邱市東區東村단위조합 6건 순이다。

이와함께 농촌마을 금고에서도 최근 농민들을 상대로한 농사대여금지급신청이 부쩍 늘어나 이날 현재 53건이 대구지법에 접수됐다。

이같이 농협이 법원을통해 농자금회수에 나서고있는 것은 지급명령신청이 있은후 해당농민이 14일이내에받아 채권확보를 손쉽게 할수있는데다 소송비용도 본안소송의 절반밖에 되지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농협측이 농민들에게 대여한 농사금액은 대부분 20만원~50만원정도 소액이다。 【聯合】

7급以下 기술직 1직급씩 올려

내무부는전국지방행정기관의 7급이하 지술직공무원 1천5백69명의 직급을 12월1일자 1직급씩 올려주기로 했다。

운전사 注意의무 強化

標識板·표시線중〝하나만있어도 橫斷步道〟

정부、道路규칙개정

정부는 26일 표시선과 표지판이함께 설치된 곳을 횡단보도로 규정하던 현행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둘중하나만 설치된 곳도 횡단보도로 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는 원래「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표시선과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이조항에「다만 도로의상황、통행하는 차량및 보행자의 수등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횡단보도 표시선 또는 표지판등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따라 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운전사 면책예외 조항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따질때「표시선과 표지판중 하나만 설치된 곳에서의 사고도 횡단보도사고로 간주할것」을 전국검찰및 경찰에시달、26일 이후부터 적용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포장 지방도로의 경우 … 표지판 하나만 설치된 곳이 많은데도 검찰의 처리지침은 두가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사고만을 횡단보도사고로 간주、그외의 경우는 운전사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해 왔다。

이번개정은 우리나라 교통여건을 감안、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사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일보理事 李弘秀씨

社友葬 내일상오9시半 永訣式

한국일보社 이사 (광고담당) 李弘秀씨 (45·사진) 가 26일상오11시 서울城北區城北洞31의23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李이사는 高麗大 法大를나와 법무처과 대법원행정처근무를 거쳐 74년부터 본사기획실부실장、일간스포츠광고국장、광고담당이사를 역임했으며 학교법인 圭칠학원이사장직도 맡고있었다。

유족은 미망인 金鍾淑여사와 2남1녀。

장례는 한국일보 社友葬으로 거행되며 28일상오9시 本社에서 발인、상오9시30분 본사후정에서 영결식을 갖는다。

장지는 충남瑞山 선영。 연락처 본사☎41-61 자택☎0566

全대통령 숙부別世

全斗煥대통령의 숙부인 全五亨옹이 25일하오 8시35분 서울城北區安岩2洞94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83세。

발인은 27일 새벽 4시、장지는 경남 陜川郡栗谷面內川里선산。

全대통령내외는 26일 하오 상가에 다녀갔다。

인터페론 生産성공

第一製糖연구진

항암치료제인 인터페론이 국내에서도 유전공학을 통한 생산에 성공、대량생산이 가능하게되었다。

제일제당식품연구소유전공학연구실이 개발한 인터페론의 대량생산기술은 동양에서는 81년 일본이 개발한데이어 두번째인데 재래식방법처럼 혈액을 이용하지 않고도 특수한 합성배지(培地)를 이용해 발효조에서 나말바세포를 배양한후 센다이 바이러스에 DNA를접합시켜 인터페론을 대량생산케하는 방법이다。

나말바 세포는 백혈구세포와는 달리 발효조의 크기에 따라 임의로 생산조절이 가능、인터페론의 양산이 가능하다。

인터페론은 혈액중에 존재하는 일종의 면역요소로 암의 발생 또는 암세포의 증식을막는 역할을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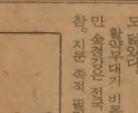
한국의「刑事Q」

忠南道警 감식계장 金玉天경감

조끼단추 한개로 犯人체포… "통쾌"

충남도경 감식계장 金玉天경감(53·사진)은 한국의「형사Q」라 할만하다。 30년의 경찰생활중 20년을 감식(鑑識)업무에만 전념해온 그는 검시관인 퀸시형사처럼 범인을 잡으러다니는 최일선형사가 아니라는점도 같지만 날카로운 감식안과 추리력으로 지능적인 음모를 분쇄하고 범인검거를 유도하는 수사의 파일러트역을 한다는점에서도 닮았다。

활약무대가 비록 충남도경이었지만 金경감은 전국 감식경찰중 최고참。 지문 족적 필적감식은 물론 화재감식 印形감식 허언탐지등 수사의 출발점이되는 모든 감식에서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않는 권위자。



물론 그의 뛰어난 감식안과 수사지식은 저절로 이루어진게아니다。 사건현장에서만 닦아온 추리력과 감식교육이라면 언제어디서있건 자진해서 받으러다닌 열성이 오랜세월 어울러져 빚어낸 결정체인것이다。

그가 감식을 시작한것은 흥미때문이었다。 6·25동란중인 52년11월 전남도경에 순경으로 들어가 智異山공비토벌전에서 육박전등 생사고비를 수없이 넘긴 그는 전쟁뒤 통신경찰로 전남과 충남도경에서 10년을 근무했다。

옆에서 구경만해온 수사가 몹시 해보고싶어 지원했더니 감식을 먼저 맡으라했다。 지난61년당시엔 도경에는 감식계의 직제도 없어 혼자서 감식업무를 맡았다。 감식지식이 백지였던 그는 천방지축 뛰어 다녀야 했다。

그러다보니 그는 충남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현장에는 맨처음 달려가는 사람이 돼 있었다。

72년 충남新灘津택시운전사 강도살인사건에서 문손잡이 안쪽에 숨어있는 지문하나를 찾아내 범인을 찾은일과 74년 成歡의 사장부인 살해사건때 조끼단추 한개와 창틀에 난 족적으로 범인을 집어낸일은 가장 통쾌한 기억으로 남는다。

그는 감식장비하나 없던 출발때에 비해 지문채취기에서 정전기족적채취까지 각종 현대장비를 갖춘 감식경찰로 성장한게기쁘기만하다。

『현장은 수사의 생명입니다』 鄭載巴군이 석방되던날 그는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裵琪哲기자】

금번 한인볼링협회는 제2회 코리언 컵 볼링대회와
회원및 교민의 크리스마스겸 송년잔치를 아래와 같이 가지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코리언 컵 볼링대회

일 시 : 1982년 12월4일(토) 정오12시
장 소 : PRO 10 PIN BOWL 877 WILSON AVE. (BETWEEN KEELE×DUFFERIN)
종 목 : ●개인전(남·녀) ●부부및 남녀혼합전 ●단체전 6인1조(남4·녀2)
참가비 : 개인전 $7·부부및 혼합전 $10·단체전 $50(6인1조·남4·녀2)
시 상 : 개인전―챔피언(챔피언컵및 애뉴얼 트로피)및 남1·2·3등, 녀 1·2·3등
핸디캡―남 1·2·3·4·5등, 녀 1·2·3등
혼합부부전―우승(우승컵및 애뉴얼트로피)및 2·3등
단체전―우승및 준우승
하이싱글및 장려상―(남·녀 1명)
부 상 : 챔피언―카스테레오(하이파이하우스, 박명호)
여자1등―볼링볼(일슨프로텐 핀 볼)
부부전1등―전기후라이팬(미도파·장추신)
핸디캡―남1등(쌀1포·동양식품 함태민) 녀1등(쌀1포·동양식품 함태민)
단체전―우승(DY국수 1BOX·DY총판 오기환)

크리스마스 및 송년잔치

일 시 : 1982년 12월18일(토) 저녁7시30분…새벽1시
장 소 : ALBION COMMUNITY CENTRE(1485 ALBION RD×KIPLING AVE.)
회 비 : $20(1인당) 식사·드링크 포함

파―티프로그램

●행운경품 : ◇대형벽시계(영리무역·이영현)
◇다운힐 스키부츠(브랜드스포츠·이진영)
◇고급전화기(TORCH, FIRE CANADA·송인문)
◇내서날전기밥솥(삼복식품·김규석)
◇DY국수 1BOX(DY총판·오기환)
◇라면(동양식품·함태민)
◇카셋테잎(종교서판·김명준)
※이밖에 협회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상품이 있음.
●쇼 노래와 경음악(5인조 밴드출연)
●땐스 파―티
※연락처 : (MR. 오)622―0224 (MR. 박)249―3039(경기) (MR. 조)661―3124

주최 재캐나다한인볼링협회
후원 한 국 일 보 사

치욕의 蹴球 예선脫落

日에 어이없이 2-1 逆轉敗

여자排球는 北韓꺾었다 3-1

陸上(800m)金福柱·사이클團體 銀메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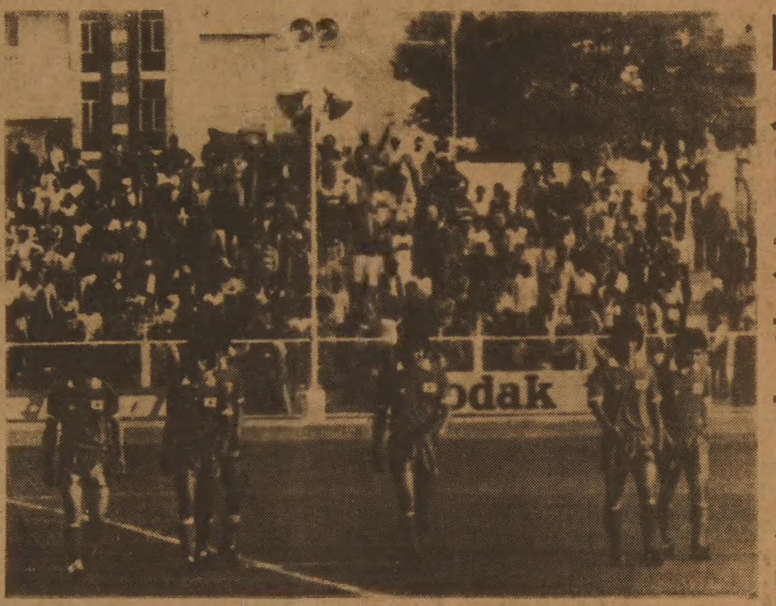
印、金8개 한국앞질러

제9회 아시안게임 8일째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 침묵의 하루를 보낸 한국선수단은 제9회 아시안게임 8일째인 26일, 사이클의 金永洙가 1천m스프린트 결승에서 강호 일본에 눌려 다시 銅메달추가에 그쳤다. 한국은 4천m 단체추발에서 두번째의 사이클 金메달을 바라보고있다. 이틀째 경기를맞은 한국육상팀은 여자1백m에서 牟明姬·朴美善이, 남자4백m계주에서 徐末九·張在根·金相文·崔容準팀이 각각 예선을통과함으로써 메달권에 육박하고있다.

한국여자 하키팀은 日本과 一알뚜고있다. 2승1무1패의 전적을 기록한 한국은 일본에게 이길경우 銀메달을, 질 경우 銅메달을 차지하게 된다. 강호 인도는 이미 5승으로 金메달을 확보했다.

◇5m를 남기고 金을 놓친 朴元根 육상 1만m 레이스 마지막 홈·스트레치에서 朴元根⑤이 중공, 일본선수와 필사적인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朴은 결승선 5m를 남기고 추월당해 아깝게 銅메달에 그쳤다. 【뉴델리25日AP합同=聯】



◇일본에 지다니… 예선전서 침몰된 한국축구。일본과의 대전서 2―1로 역전패를 당하자 선수들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한채 그라운드를 나섰다. 【뉴델리25日합同=聯】

25일 축구대표팀은 D조예선리그 3차전서 日本에게 2―1로 역전패, 예선탈락의 고배를들어 한국선수단에 가장 큰 치욕을 안겨주었다. 78년아시안게임서 북한과 공동우승을 차지했던 한국축구가 예선에서 침몰된것은 돌이킬수없는 오점이며 앞으로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않는한 아시아정상권 진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날 여자배구는 북한과의 남북대결서 격전끝에 3―1로 역전승, 19년전 뉴델리서 당했던 패배를 씻었으며 북한과의 역대전적서 3승2패를 기록했다.

조정 2·4人乘도 銅메달2

배드민턴 印尼꺾고 準決에

사이클(1千m스프린트)金永洙銅

女子하키 日과銀겨뤄

사이클 한국은 사이클 4천m단체추발서 4분48초89로 銀메달을 차지했다. 金永洙는 야무나벨로드롬에서 벌어진 사이클1천m스프린트경승에서 11초85로 3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사까모도는 11초32로 대회신기록(종전11초47)을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1천m스프린트=①사까모도(일본) 11초32 ②나가사끼(일본) 11초58 ③金永洙 11초85

▲4천m단체추발=①일본 4분40초39 ②한국 4분48초89 ③필리핀 4분51초75

하키 한국남자팀은 이미 일본, 파키스탄에 연패, 예선탈락했으나 이날 남은 중공과의 최종전에서 3―2로 첫승리를 거두었다.

한국 3(2―1 1―1)2 중공
(1승2패) (3패)

조정 한국은 조정에서 무타2인승과 유타4인승에서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다.

▲무타2인승=①중공 7분42초14 ②일본 7분51초93 ③한국 8분01초53 ▲유타4인승=①중공 7분0초79 ②북한 7분07초46 ③한국 7분08초62

축구 한국은 예선 D조 마지막경기에서 日本에 2―1로 역전패, 1승2패의 전적으로 일본, 이란에 이어 3위로 추저되고말았다. 한국은 전반21분 골포스트로 선제골을 빼앗았으나 후반들어 갈팡질팡, 후반13분과 35분에 일본에 2골을 허용하고 방콕대회챔피언의 면모에 먹칠을 했다.

▲예선D조 일본 2(0―1 2―0)1 한국 / 이란 2―0 남예멘

▲동순위=①일본(2승1패) ②이란(2승1패) ③한국(1승2패) ④남예멘3패

배드민턴 한국남자배드민턴팀은 朴柱奉등의 활약으로 말레이지아를 3―0으로 제압하고 인도와 함께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여자단체준준결승에서 柳尙希、金練子의 수훈으로 강적 인도네시아를 4―1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여자팀은 준결승서 중공과 겨루게 됐다.

▲남자준결승 한국 3―0 말레이지아 / 인도 4―1 태국 ▲여자단체준준결승 한국 4―1 인도네시아

【뉴델리26日聯=聯】 아시안게임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락구, 체조등 3종목의 경기가 완료된 가운데 中共과 日本은 아시안게임 종합우승의 차대고비가 될 육상에서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中共은 대회 8일째인 26일 현재 금메달 36개로 선두, 일본은 28개로 2위를 마크하고 있다. 주최국인 印度는 육상첫날 경기서 금메달 2개를 획득, 8개의 금메달로 한국을 제치고 3위로 뛰어올랐다.

◇메달중간집계
<26일화오7시현재>

	金	銀	銅
①중 공	36	26	19
②일 본	28	25	18
③인 도	8	5	4
④한 국	7	14	17
⑤북 한	5	12	14
⑥쿠웨이트	1	2	1
⑦필 리 핀	1	1	4
⑧印 尼	1	1	3
⑨몽 고	1	1	0
⑩이 란	1	0	1
⑪태 국	0	1	0
⑫레 바 논	0	1	0
⑬이 라 크	0	0	2
⑭싱가포르	0	0	1

20세의 大學2년생 曺

◆…『3관왕이 된후 욕심 생겨 최선을 다했읍니다』 20살인 上海체육대학 2년생 曺燕華는 탁구서 4관왕 마지막 혼합 복식에서 이 타이틀을 따낸뒤 이렇게 말했다. 여자단식과복식, 혼합복식, 단체전서 金메달을 차지한 曺는 1백66㎝·56㎏의 다부진 체격에다 볼센스가 좋아 스카이서브·포핸드스매싱등 탁구에서 필요한 기본기를 능수능란하게 해냈다. 曺는 蘆玲의 그늘에 가려 세계랭킹 2위에 머물렀으나 이번대회 단식에서 蘆를 3―0으로 완파, 세계랭킹1위를 확고히 했다.

曺는 제36회 노비사드세계선수권대회에서 대표선수로 첫출전, 여자단식 2인자가 됐다. 평소에는 말을 잘하지 않는 내성적 성격이지만 일단 코트에 들어서면 파이팅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선수. 83년 東京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하겠다고 말했다.

필드하키 화제만발

◆…파키스탄과 印度는 세계필드하키계의 두거봉으로 이들의 경전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세계정상급의 공격수 5명으로 구성된 파키스탄의 공격력은 놀라웠다. 전광석화 같은 스피드와 패스워크은 일품이었다. 압둘·화니프칸(25)은 파키스탄의 에이스 1백83㎝의 키에 몸무게 55㎏의 후리후리한 체격의 칸은 한국과의 경기에서 팀의 선수들에 사이 우리 선수단 …

中共탁구선수 曺燕華、金4冠王 기염

각국선수들 빈디와 사리에 큰 관심

호텔남아돌아 울상

◆…객실난과 생필품가격폭동을 염려했던 인도당국은 관람객이 예상의 7분의1도 들어오지않아 생필품값이 오르지않은것은 다행이나 호텔의 과잉시설때문에 울상. 최고급 호텔인 마크마트호텔의 경우 조직위원회를통해 75명예약에 47명이 들어왔고 산삼바트호텔은 80명예약에 50명만이 실제로 도착.

경기끝난 선수出國

◆…대회가 7일째로 접어들면서 경기가 끝난종목의선수들은 선수촌을 떠나기 시작했다. 가장먼저 선수촌을 …

이란·이라크선수 정겹게 악수나눠

◆…앙숙간이던 이란과 이라크선수가 모처럼 정겨운 우의를 나누어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다. 역도 75㎏급 시상식에서 금메달리스트인 …

시크敎徒3천 검거

◆…인도정부는 체포된 시크교도들을 아시안게임후 석방하겠다고 공언한가운데 시크교도들을 제위를 벌인 시크교도들을 계속검거, 아시안게임이 개막된 19일부터 24일까지 6일동안에 체포된 시크교도는 3천명에 이른다. 인도경찰은 뉴델리에서 53명의 시크교도를 새로 체포한 집회금지법에 따라 체포했는데 편잡주에서도 47명의 시크교도가 자치권한의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들렸다.

男선수는 터번쪽에

◆…아시아 각국 선수들이 인도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여자는 빈디와 사리, 남자는 터번 …

◇여자배구 남북대결에서 3―1로 승리한 순간 金英淑·李恩敬·鄭昌仙·朴美姬(右로부터)등이 환호하고있다. 【뉴델리25日 신문공동취재단聯=聯】

◇27일 한국경기 (한국시간)

▲육상
남1백m예선 張在根·徐末九
남멀리뛰기 金鍾鎰 (11시30분)
여 4백m허들 田京美 (13시30분)
여1백m결승 牟明姬 (13시30분)
여3천m결승 金順化 (14시45분)
▲수영
남배영1백m및 개인혼영 2백m 李忠原 (15시)
여배영 1백m및개인혼영 2백m 崔允熙·崔允喜 (13시30분)
스프링다이빙 李承俊 (15시)
▲역도
1백kg급 安智榮 (14시30분)
▲사격
속사권총 張忠烈·朴鍾吉 (9시30분)
▲남자핸드볼
한국―중공 (9시)
▲남자농구
한국―북한 (19시)
▲테니스
남개인단식 金春浩 (11시)
남복식 이우룡·金春浩·全榮大·宋東郁 (9시)
여단식 金潔玉·金明淑 (11시)
▲배드민턴
남단체결승 (19시)
여단체결승 (17시)
▲기타 복싱·남자하키·요트

여자 농구팀 2승 27일 北韓과 한판

농구 한국남자팀은 예선 2차전에서 바레인을 106―70으로 대파, 2승으로 8강의 결승리그에 선착했다. 한국은 결승리그에서 26일 필리핀과, 27일 북한과 대결한다. 여자팀은 리그2차전서 인도를 127―56으로 대파, 2승을 올렸다.

▲남자B조 한국 106(56―50 42―28)70 바레인 (2승) (2패)

▲남자결승리그 한국대진=필리핀(26일) 북한(27일) 일본(29일) 인도(30일) 말레이지아(12월2일) 중공(3일)

▲여자리그 한국 127(66―30 61―26)56 인도 (2승) (2패)

육상 한국의 牟明姬와 朴美善이 여자 1백m 예선을통과, 결승에 올랐으며 徐末九·張在根·金相文·崔容準이 출전한 남자 4백m 계주에서도 예선을 가볍게 통과, 26일 하오에 벌어지는 결승에 나갔다.

◇탁구세계 1人者…4관왕 공격 탁구서 금메달 4개를 차지한 中共의 曺燕華. 【뉴델리聯=聯】

역도 한국의 李康錫은 82·5㎏급에서 도합 327·5㎏으로 한국신기록(종전322·5㎏)을 수립했으나 일본, 레바논등에 이어 4위에 머물렀다.

▲82·5㎏ ①이사오까(일본) 350㎏ ②트라블시(레바논) 340㎏ ③김용삼(북한) 330㎏ ④李康錫(한국) 327·5㎏

핸드볼 한국남자팀은 25일 바레인과의 예선B조 2차전서 34―24로 이겨 2연승으로 결승토너먼트진출이 유력해졌다.

▲남자예선B조2차전 한국 34―24 바레인 (2승) (1패)

탁구 ▲남자복식결승 金琓·金基澤 ―

배구 인드라푸라스타 체육관에서 25일 벌어진 남북대결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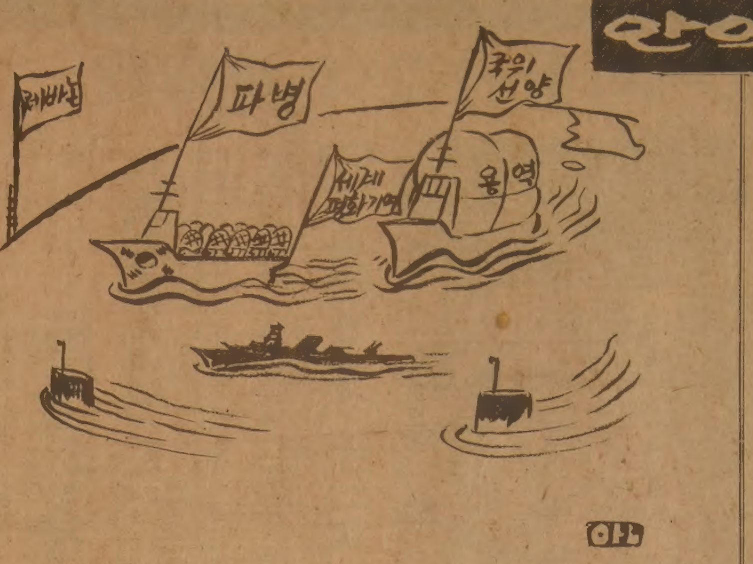
교민을 위한
82년도 송년파티
한국의 거성
민요가수 김세레나
처음 토론토에 오다
일 시 : 1982년12월10일(금) 오후6시
장 소 : 할리데이·인(다운타운)
89 Chestnut (977-0707)
입장료 : $25(디너포함)
ㅁ매표장소 : 각 식품점및 식당
ㅁ권순근및 그의악단
ㅁ찬조출연 : 가수 김미리자
토론토지구 한인회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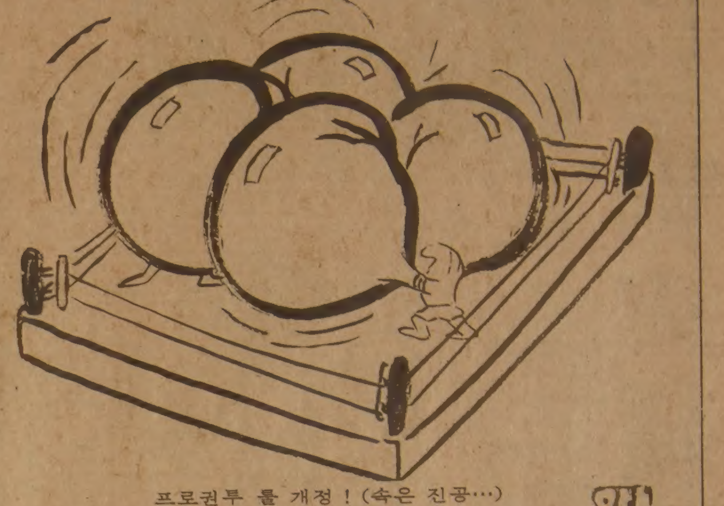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608 BLOOR ST. W
전화: 531-6183

안의섭 時事칼럼



一擧多得인데…



프로권투 룰 개정!(속은 진공…)

사건記者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전도사라고 속이고 할머니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낸 도둑과 안수기도로 병을 고쳐주겠다며 환자 가족에게서 돈을 울거낸 사기범이 구속됐다. 도둑은 귀금속 감정가라고도 속였고 사기범은 신학대학원 전도사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어수룩하거나 불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세우면 잘도 속아 넘어가는 묘한 세태가 반영된 사건인듯 해서 입맛 떫다. 이번주 「기자수첩」은 농촌에서 어린 자녀들을 버리고 부모가 몽땅 도시로 종적을 감추는 시골부모들의 「농촌 엑소더스」부터 펼친다.

하나님 내세운 詐欺犯들 "병고쳐 준다"고 金品털어

離農부모로 고아늘어

▲어린자녀들을 농촌에 버려둔채 도시로 떠나버리는 부모들이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慶南居昌군 관내의 경우 지난해 까지만해도 가정불화등으로 집을 떠난 부모들이 2가구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는 11가구가 늘어난 13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인근 咸陽군에도 10가구나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居昌군加祚면一釜리 [illegible]성군(12)과 성은군(9)형제의 경우 지난 74년 아버지가 병사한뒤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으나 어머니마저 지난 9월 가출해버려 군청에서 1개월에 2만원씩 주는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

또 居昌군加北면海坪리 김진하군(14)과 선인(11) 미아양(9)등 3남매도 부모가 10개월전 가정불화로 모두 떠나버린뒤 고아아닌 고아가 돼 역시 군청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살고있다.

군당국등 관계기관에서는 독지가들이 후원회를 구성, 장기적으로 이들을 도와줄것을 기대하고있다.

빚재촉타 박치기 사망

▲지난 10일밤 11시께 서울道峰구雙門5동679의17 정도우씨(62)집에서 정씨에게 빚을 받으러 갔던 孫五씨(34·운전기사·도봉구 미아5동1261의454)가 정씨의 아들 在起씨(20·운전기사)와 싸우다가 박치기를 당해 그자리서 숨졌다.

孫씨는 지난9월초 정씨에게 85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이날 하오9시께 시내 모찻집에서 정씨를 만나기로했으나 정씨가 약속장소에 나오지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것.

在起씨에 따르면 이날 아버지 정씨가 외출한 사이 孫씨가 찾아와 『남의 돈을 거저 먹으려느냐』며 욕설을 해 화가 치밀어 머리로 孫씨의 이마를 박치기했는데 孫씨가 입에 거품을 물고 주저앉았다는것이다. 경찰은 在起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국할 관광객, 택시에둔 여권 학수고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온 관광객 2명이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모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한채 발이 묶여있다.

지난 7일 한국에 관광차 온 세린느·게아씨(37·회사원)등 2명은 10일하오 CX416기편으로 출국하려고 김포공항으로 나가던중 타고간 [illegible]택시안에 여권을 두고내려 이 사실을 급히 공항경비대 수사반에 신고했으나 우리나라에는 세네갈대사관이 없고 명예영사만 있는데다 명예영사마저 장기출타중이라 이들 관광객의 출국근거를 마련하려면 일본 東京에 있는 세네갈대사관에 가서 임시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것.

계야씨등은 자신이 체류하고있던 메트로호텔로 되돌아가 애를 태우며 여권을 습득한 운전사나 시민이 빨리 연락해주기만을 기다리고있다.

자칭전도사 不治病 안수기도 한다 갈취

상습 네다바이범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韓龍榮씨(23·절도전과2범·주거부정)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韓씨는 14일하오2시께 서울강남구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李玉姬씨(56·경기도 江華군內可면 古川리350)에게 교회전도사라며 접근, 자신이 10년가까이 금은방을 경영한 적이 있으니 李씨의 금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해주겠다고 속이고 손가락에 끼고있던 5돈중짜리 금반지를 빼어 달아나다 순찰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韓씨는 지난 1일부터 강남터미널에서만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주로 나이많은 할머니들을 상대로 45만원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났었다.

<그림·韓大雄>

▲서울동부경찰서는 15일 자칭 맹인전도사 鄭圭球씨(35·전과2범·주거부정)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맹인 鄭씨는 S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전도사로 자칭, 하나님의 특별성령을 받아 난치병을 단시일에 고칠 수 있다면서 지난달 27일 기독교 신자 申모양(23·성동구 성수동1가)으로부터 뇌성마비로 사경을 헤매는 申양의 오빠 申모씨(25)의 난치병을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가 『6일동안 안수기도를 받으면 거뜬히 나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안수기도에 들어갔다는 것. 여기서 鄭씨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한다』는 말을 되풀이 해 말의 뜻을 눈치챈 申양으로 하여금 5만원을 내놓게 하는 등 지난 3일까지 13회에 걸쳐 이발비, 목욕료, 대학원 논문 쓰는데 필요한 녹음기 구입비등 각종 명목을 동원, 40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공중전화재촉하다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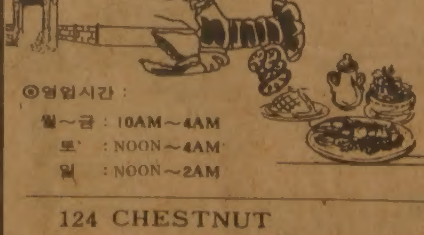
▲부산 중부경찰서는 9일 金英蘭양(25·부산시서구괴정동)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金양은 지난 8일밤 9시40분께 中구南浦동4가 동명슈퍼마키트 옆에 있는 공중전화박스에서 통화를 오래하다가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가정주부 韓모여인(33·동래구 연산2동)으로부터 『통화를 빨리 끝내라』는 재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내고향
통닭집
•칼국수 •오뎅 •통만두
☎537-0432
658½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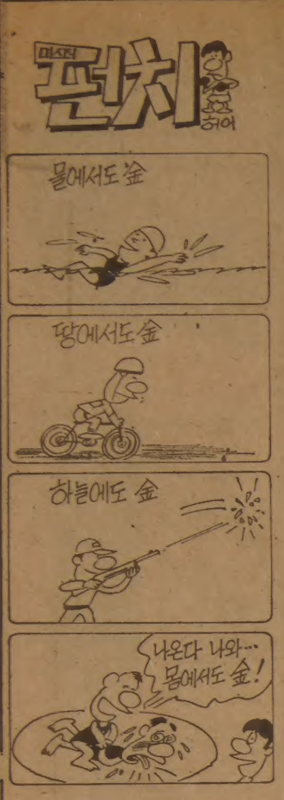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10AM~4AM
토: NOON~4AM
일: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977-9734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海外걸작만화

『아빠, 조심하라, 엄마가 부어있다』

「신문에 안난 現場」

馬聯에 본사두고 정부거액 공사땄다며 80명취업사기

아크릴로 TV보안기 만들어 외제상표 붙이고 폭리

축을 받자 『당신이 뭔데 남의 전화까지 상관이냐』며 시비가 붙었던것. 金양은 시비 끝에 약이 올랐던지 韓여인의 오른쪽 귀를 물어 뜯어 26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혔다고.

개새끼 서로사려 소동

▲14개월짜리 도사견이 21마리의 새끼를 분만한 강원도東草시校동769의54 金鍾旭씨(39·낙천운수대표)집에는 도사견 새끼를 사겠다는 애견가들이 몰려들어 화제가 꼬리를 물고있다.

지난 4일 金씨의 도사견이 21마리의 새끼를 낳았다는 보도가 있자 6·7 양일간 서울등 각지에서 구경을 겸해 새끼를 사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것.

지난 7일에는 서울 舍堂동에 사는 한 할머니가 도사견 1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 젖을 먹여 기르겠다며 50만원을 맡기고 암수 5마리를 사갔다.

또 江陵과 東草등지에서도 8명의 애견가들이 달려와 젖이 떨어지면 사가겠다며 계약금을 맡기고 돌아가기도 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0일 말레이지아 현지법인인 사바코개발공사 사장 金종일씨(45·사기전과8범·성북구 보문동1의127)·이사 金종우씨(49·전과5범·성북구종암동112의20)등 7명을 사기및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등은 지난 81년10월 말레이지아에 사바코개발공사라는 건설회사를 설립한뒤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05의65에 사바코개발공사한국지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말레이지아 정부로부터 거액의 주택단지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선전, 이를 듣고 찾아온 김정철씨(34·경남晉州시상평동928)에게 해외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등 80명으로부터 1인당 40만원~2백3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는것.

사장 金씨는 또 말레이지아 공사장에 식당을 운영케 해주겠다며 鄭모여인(39·부산)으로부터 계약금조로 1천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보따리 밀수 中國人

▲김포세관은 최근 규모로 보나 액수로 보나 그리 크지도 않으면서도 조잡스런 솟법의 밀수를 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바람에 골치를 앓고 있다. 주로 우황청심환같은 약품류나 값싼 보석류를 가져오는 이들 중국인들의 계산은 현지싯가로 50만원정도의 물품만 잘 챙겨와 한국에서 팔면 비행기값과 체재비를 벌수있다는 속셈인데 최근엔 거들이나 몸속에 대만산 비취를 숨겨들여오던 중국인이 적발되기도.

세관측은 이같은 밀수를 방지하기위해 이들의 짐을 정밀검사하다 보면 주위로부터 『서양인과 동양인을 차별하느냐』 또는 『외국인에게 너무 불친절하지 않느냐』는등 비난까지 받아 『중국인 보따리장사꾼 때문에 일잘하고 욕먹는다』고 푸념.

▲서울지검북부지청은 12일 黃鳳益씨(27·한일산업사대표·서울마포구망원동210)李鍾均씨(29·이나전자공업사대표·서울영등포구대림3동)등 TV보안기제조업자4명과 金喆基씨(48·봉일상사대표)趙德衍씨(30·서울강남구압구정동 한양쇼핑센터 한빛상사대표)盧銀姬씨(24·서울강남구반포동 뉴코아쇼핑센터)등 상인4명등 모두 8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TV보안기 제조업자인 黃씨는 지난 8월부터 국산아크릴판을 잘라 TV보안기 6천여개를 만든뒤 일본의 미쓰비시상표와 안내문을 붙여 판매업자인 金씨에게 개당 3천~3천5백원씩 받고 팔았으며 金씨는 외판원30여명을 고용, 이들을 통해 개당 1만5천원에서 2만원씩 받고 시중에 팔았다는 것이다.

또 이나전자공업사대표 李씨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국산TV보안기 4백여개에 서독 마비츠상표를 붙여 개당 3천원씩을받고 상인들에게 넘겼으며 趙씨등 상인들은 가짜 외제보안기를 진품인것처럼 개당 2만원에서 2만8천원까지받고 소비자들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사건記者 수첩

기형새끼난 10년된 소

▲다리가 6개달린 기형송아지가 태어나 화제.

江原도平昌군平昌읍鳥屯리 金玉蘭씨(여·51)가 기르고있는 10년생 암소가 지난 3일하오3시께 정상적인 4개의 다리외에 왼쪽 옆구리 부분에 정상적인 다리의 반정도 크기의 다리2개가 더 달려있는 송아지 1마리를 낳았다.

金씨가 기르고 있는 암소는 지난 3월 平昌군大和면 가축시장에서 1백25만원을 주고 사온것인데 당시 새끼를 배고 있었다는것.

▲14일하오6시께 서울城東구九宜동47의18 앞길에서 대한여행사소속 서울5바1201호 관광버스(운전사 李茂正·41)가 자전거를 함께 타고가던 입귀종군(7·용마국교1년)과 입희진군(5)형제를 치어 그자리에서 숨지게했다.

이날 사고는 관광버스가 관광객 36명을 태우고 현충사를 다녀오던중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영화사입구쪽으로 달리다 희진군을 뒤에 태우고 도로변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귀종군을 추월하려다 버스 옆부분으로 받아 일어났다.

강도돌변 손님 격투끝에잡혀
끔찍한 10代 친구아버지협박
유흥업소 음란행위철퇴 단행

▲13일밤 9시께 서울永登浦구文來동4가40 도림천 제방밑에서 서울4하3343호 택시(운전사 李壽男·37)를 타고가던 金亨培씨(22·경남南海군南면虹峴리878)가 강도로 돌변, 운전사 李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2만4천원을 빼앗아 1백여m를 달아나다 뒤쫓아간 李씨에게 격투끝에 붙잡혔다.

金씨는 이날 하오8시50분께 서울구로구구로동 제일시장 입구에서 『문래동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뒤 차가 도림천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운전사 李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13일 친구집에 들어가 친구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후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金모군(19·주거부정)韓모군(18·〃)黃모군(19·〃)등 10대 5명을 특수강도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군등은 지난10일밤 10시40분께 서울鍾路구惠化동163의3 친구 沈모군(19)집에 복면을 하고 침입, 안방에서 잠자던 沈군의 아버지 沈주임씨(50)와 사촌형 沈헌봉씨(24)의 손발을 묶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 장롱속에 있던 현금25만원과 여자용 손목시계1개(싯가7만원상당)등 32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던 혐의다.

▲서울시경은 15일 최근 시내 일부유흥업소와 숙박업소등지에서 손님을 끌기위해 공공연히 음란 퇴폐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정보에따라 일제단속을 벌여 유흥업소 1백24개소와 숙박목욕업소 4개소등 퇴폐및 무허가업소 1백67개소를 적발, 해당업주와 종업원들중 2명을 구속하고 59명을 형사입건, 2백54명을 즉심에 넘겼다.

경찰은 이와함께 윤락녀 54명을 수용조치하고 업태위반 유흥업소 1백19개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퇴폐카바레 5개소 △퇴폐맥주홀및 살롱 9개소 △업태위반 유흥업소 1백10개소 △윤락행위알선및 음란비디오상영숙박업소 39개소 △마사지목욕탕 4개소등이다.

경찰에 구속된 성동구황학동 호해여관 주인 崔相鎬씨(34)와 동대문구신설동 신설정 지배인 朴鍾元씨(41)등 2명의 경우 밀실에 비디오를 설치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도색영화를 상영해 왔으며 형사입건된 카바레와 살롱등의 경우 스트립쇼 무희1~2명씩을 고용, 나체로 춤을 추게하거나 접대부들로 하여금 퇴폐행위를 하게했다는것.

이밖에 입건된 숙박업소 주인들은 윤락녀를 고용, 매음을 알선해온 혐의다.

<정리=韓升濬기자>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33회 퀴즈>

1		2	■	3		4
	■	5	6		■	
7	8	■		■	9	
■	10		■	11		■
12		■	13	■	14	15
	■	16		17	■	
18			■	19		

<힌 트>

■가로
1. 18년간 소련을 통치한 인물
3. 호텔 현관앞 제복입은 사람.
5. 내국세 부과 징수를 관장하는 기관
7. 장식과 산화방지를 위해 금속에다 다른 금속의 피막을 입힘
9. 백조
10. 페르시아가 유명
11. 9인제나 6인제
12. 본업이 아님
14. 습관성을 지닌 마취작용을 하는 약
16. 경부대역전 경주대회의 스타
18. 동산가동 산에서 젯상을 차리고…
19. 유럽에서 제왕의 등극을 선시하는 의식

■세로
1. 일본 북단의 섬
2. 쇠고기와 뼈를 흠씬 고아서 끓여 양념을 쳐서 먹는 국
3. 워터게이트
4. 괴로운 챔피언
6. 요즘은 기계가 대신 해주는 주부의 일
8. 화폐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
9. 전분이 많음
12. 투기 바람이 불더니만 거래가 뚝…
13. 요즘은 콘택트렌즈
15. 결혼식에 앞서…
16. 동물의 표본
17. 광산의 일부를 맡아 채광하는 사람

<정답은 10면에>

■뉴스낱말풀이 퀴즈正答 <제33회>

북	극	곰	■	도	어	맨
해	■	국	세	청	■	시
도	금	■	탁	■	고	니
■	융	단	■	배	구	■
부	업	■	안	■	마	약
동	■	박	경	덕	■	혼
산	신	제	■	대	관	식

숨은그림 찾기

암행어사 朴文秀

그는 근세 조선 영조때의 유명한 공신으로서 그의 자는 성보, 호는 기은으로 중종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영조때 암행어사가 된 사람이다.

힘센 충복 두칠이를 데리고 이 고을 저 고을을 두루 살피며 힘없고 약한 백성의 사정을 풀어주던 박문수.

그는 도둑떼가 많다는 문경 새재로 향한다. 그는 문경새재에 도둑이 많은것은 그곳 사또에 백성을 다스림에 소홀함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 박문수, 문경을 향하는데 산을 넘던중 어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좇아가보니 웬 여인네가 자살을 하려 하고 있는지라, 사정을 들으니 문경의 사또가 백성은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만 채우다 급기야는 부인의 미모에 반하여 서방을 옥에 가두고 부인을 겁탈하려 하여 자살을 기도한지라. 암행어사 출도로 어린것과 부부의 생명은 물론 고을 백성들의 원을 풀어 주었더라.

<작품중에서>

■숨은 그림

해바라기, 식칼, 미꾸라지, 개구리, 바닷게, 새우, 오징어, 거북이, 오리, 두루미, 너구리, 닭, 메뚜기.

구성 장태산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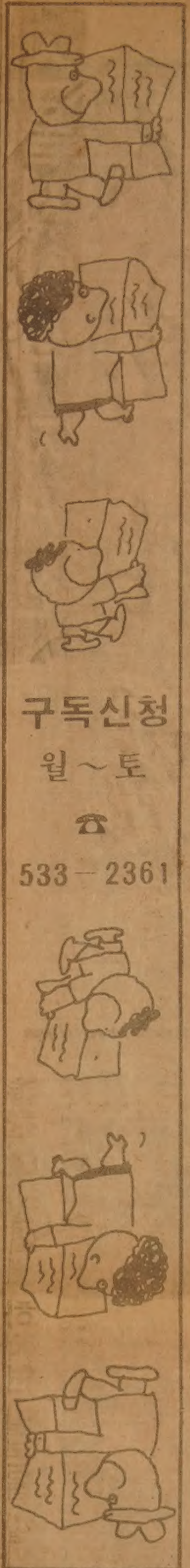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버림받은 이의 등불… 「거지神父」

부랑인들 위해 「꽃동네」꾸며… 충북 陰城郡 吳雄鎭신부

◇굶주리고 병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吳雄鎭신부.

本誌기자 現地취재

병들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사랑의 가나안」을 일구기 시작한 무극천주교회 吳雄鎭신부의 집념이 올해 안으로 그 첫번째 수확을 얻게 된다. 지난 9월 중순, 1천여명의 회원·신도들이 모여 첫 삽질을 했던 충북 陰城郡 孟冬面 仁谷里에 건설중인 「꽃동네」가 이 해안에 준공을 보게 될 것 같다. 〔無極=姜升遠기자〕

「꽃동네」…吳신부 집념, 올해안에 준공 목표

무극里는 50~60년대 호황이뤘던 廢鑛村

『걸인이나 병신등 불우한 이웃들을 보면 누구나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피부에 와 닿으면 싫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를 대신해서 따뜻하게 맞아줄 보금자리가 바로 꽃동네입니다.』

吳신부가 이 「꽃동네」를 건설하게 된 것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청주교구 관내인 수동성당에서 보좌 신부를 마치고 무극천주교회의 신부로 부임한 직후인 76년 가을.

吳신부는 미처 철도 들기전인 9세때 아버지를 여의고 얼마 뒤에는 여동생까지 잃는 등 좌절과 슬픔속에서도 배워야겠다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주경야독을 계속했다. 28세때 고교를 졸업한 그는 대건신학대학에 진학하는 만학의 길을 걸어온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 첫번째로 길거리에 버려진 걸인들을 돕기 시작했다.

吳신부가 이같은 결심을 하게 된것은 금왕읍 소재지인 무극리에는 무려 50여명의 걸인들이 몰려있었는데 이는 이곳이 지난50~60년대 우리나라 금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던 대명광업이란 금광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기 때문이다.

한때 금왕읍의 인구가 5만명에 육박할만큼 경기가 풍성했던 금광이 맥이 끊겨 폐광되면서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 지금은 호황시 인구의 절반인 2만5천여명으로 줄어든것이다.

그러면서도 호황에 몰려들어왔던 걸인들은 웬일인지 떠나지 않고 무극천 다리밑에 본거지를 삼은 채 굼지럭거렸다. 어느 날 다리밑의 걸인들을 찾아가 한아름의 선물을 전하면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살펴봤을 때 吳신부는 문득 「건강한 사람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나,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는것이 우리 사제의 할 일이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특히 吳신부의 마음을 울적이게 하고 눈물을 글썽이게 만든 사람은 무극장터의 걸인들을 이끌어온 崔基東 할아버지였다.

지금은 「사랑의 집」에 들어와 불편한 몸을 누이고, 투병생활을 하고있으나, 그때만해도 66세의 崔노인은 건강을 자랑하는 노익장으로 몇십명의 걸인들에게 먹을것과 입을것을 마련해 주는 가득한 인정을 베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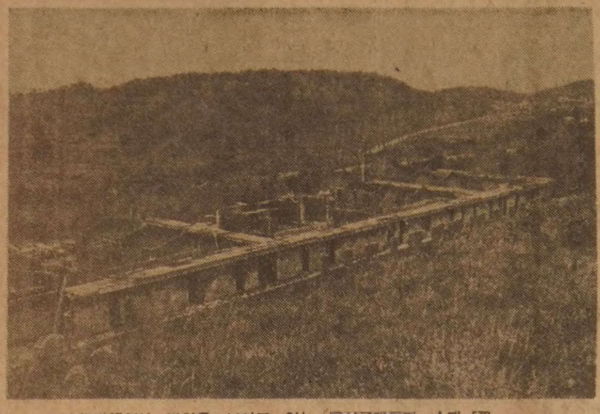
정신이상자도 아니면서 걸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崔노인에게서 吳신부는 거룩한 모습을 발견했고, 그를 「천사같은 분」이라고 불렀다.

「崔노인도 걸인들을 돌보는데 성직자인 우리가 그들을 외면할수 있겠는가」라는 자문자답에 얽히면서 吳신부는 1차로 무극다리밑에 살고있는 40여명의 부랑인들을 한곳에 모아 수용하기로 결심했다.

걸인들에 먹을것 입을것 주던 노인에 감명

2백평부지 「사랑의집」짓고 수용하기 시작

그것이 지금 금왕읍 무극3리 용담산 기슭에 있는 속칭 「사랑의 집」이다. 이같은 결심을 굳힌 吳신부는 부지 2백평을 사들여 그 곳에다 슬레이트지붕으로된 집4채를 지었다. 방5간과 취사장등을 만들어 부임 3개월만인 지난76년11월 무극다리밑에 살고있는 걸인들을 몽땅 이 곳으로 이사시켰다.


◇공정65%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음성군맹동면 소재 「꽃동네」 본관건물.

당초에는 40여명 뿐이었으나 吳신부가 부랑인들을 위해 수용시설을 짓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에서까지 걸인들이 몰려들어 첫날 이사한 걸인들은 무려 59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었다.

吳신부는 우선 이들을 방5개에 분류해서 살게 했다. 장님은 장님대로, 벙어리는 벙어리들대로, 또 중풍환자는 그들대로 기거하도록 하면서 각각 이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몇명씩 같이 살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무극다리밑에 살던 걸인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대신 따뜻한 방에서 하루 세 끼씩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행복스런 삶을 엮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吳신부에겐 아름답지 않은 별명이 붙었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빈축 아닌 빈축을 받게 되었다.

거지들을 다른곳으로 쫓아낼것이지, 한곳에 모아 수용을 한다는 것은 무극장터를 거지소굴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생트집이었다. 그러면서

신도들과 「꽃동네회」…「걸인들의 마을」추진

1만여평 매입, 9월 起工 현재 65%의 工程

吳신부를 가리켜 「거지대장」이라고 수군댔다.

생각하면 기막힌 노릇이었다.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흉한 꼴을 보여가며 구걸하면 모습을 안보도록 해줬으면 고마울 일이지 욕할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는 길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낸 세월이 5년이었다. 그동안 이 사랑의 집을 거쳐간 사람은 무려 1백50여명. 현재 수용중인 70명을 제외하고도 50여명은 이곳을 거쳐 좋은 시설로 옮겨갔거나 연고자를 찾아 떠났고 30여명은 吳신부의 종부성사를 받으며 눈을 감고 저세상으로 떠나간 것이다.

「이들에게 정착할 안식처를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데 생각을 굳힌 吳신부는 뜻을 같이하는 鄭바오로씨(26·음성군금왕읍)등 3백여명의 신도들을 모아 「꽃동네회」를 조직했다.

꽃동네회란 이들 걸인들만이 살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주자는 목적 아래 발족되었고 회원들은 매월 1천원씩의 회비를 내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금년 봄 부활절때의 일이었다. 조직과 함께 거둬진 회비와 성금은 무려 1천4백여만원. 이에 용기를 얻은 吳신부는 꽃동네 건설 5개년 계획을 작성, 회원들에게 인준을 받은 다음 올해 사업을 착수했다.

에 계획대로 추진될 올해 사업은 꽃동네 부지매입과 본건물 건축이었다. 「시작이 반이다」「저질러 놓으면 될것이다」라는 속담을 믿으면서 吳신부는 부지부터 매입했다. 무극에서 진천으로 가는 도로변인 음성군맹동면인곡리 산1의45 국유림 9천9백50평과 인근 사유림등 모두1만8백40평을 첫번째 모금된 성금으로 구입했다.

「꽃동네」부지가 마련되자 吳신부는 기다릴 수가 없었다. 회원들과 청주교구를 찾아가 하루빨리 건물을 짓겠다는 청원을 냈다. 그리고는 이미 재빨리 공사착수금을 준비하러 뛰었다.

드디어 9월21일. 「꽃동네」회원·천주교신도등 1천여명이 모여 현지에서 본관 신축공사기공식을 거행했다. 시멘트 벽돌제작, 부지정지등은 회원과 신도들이, 기타 공사는 인근지역에서 다른 공사를 하고있는 삼익건설회사가 맡아주었다.

건평3백70평의 단층 건물인 이 본관은 침실22개(10평짜리)와 부속실·화장실·세면장·의무실·탈의실등 양로시설과 똑같은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공사비는 무려 2억원 가량이 들것 같다는 것이다. 11월중순 현재까지의 공정은 65%이며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삼고 있으며 입주시기는 꽃피는 내년 3~4월께로 잡고있다.

이 「꽃동네」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회원들도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4천3백명으로 불어났다. 吳신부는 5년후 「꽃동네」가 완전한 모습을 갖출 때까지는 회원수를 4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않고 자신있게 운영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꽃동네」의 본관이 연말에 준공되면 내년3~4월쯤 지금 용담산밑에 있는 사랑의 집 식구들만 이사를 시키고, 용계리 고개밑에 있는 「결핵동」의 식구10명과 정신이상자, 알콜중독자등 20여명은 내년에 별관을 지어서 합류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吳신부가 지금 고심하고있는 것은, 준공에 필요한 총3억원대에 이르는 예산이다. 이 돈 3억여원은 5년이라는 계획기간중에 투입될 돈이긴 하지만 4만명이라는 회원이 모아지기 전에는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사가 없는 날에는 공사장에 나가서 일꾼들과 함께 벽돌을 쌓거나 그 밖의 일로 땀을 흘리고 있는 吳신부는 『내가 항상 힘을 얻고있는 것은 3년전부터 불우 이웃을 도우며 살겠다는 11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이들중 몇몇 사람은 3년전부터 용담산밑의 「사랑의 집」에 들어와 걸인들과 함께 숙식까지 같이하고 있을 정도. 吳신부가 젊은 나이에 맨손으로 이같이 엄청난 큰일을 해내고 있는것은 바로 이같은 「꽃동네」회원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기 때문이다.

62명이 살고 있는 「사랑의 집」에서 살펴 본 수용인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다. 맹인·반신불수·벙어리·간질환자·귀머거리·정신이상자·알콜중독자·자궁종양환자 등으로 다양한 병신·병자들이었고, 용계리 고개밑의 두 채의 집에서 살고있는 2가구 10명의 결핵환자들을 포함하면 종합병원환자 수용소를 방불케 한다.

吳신부는 매일 아침 미사가 끝나면 성당에서 북으로 2㎞, 남으로 2㎞거리에 있는 이 사랑의 집과 결핵동을 꼬박꼬박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밤새 안녕」을 체크하고 있다.

요즘 매주말이면 서울·부산·대구등 전국에서 꽃동네회원 및 천주교 신도 30~50명이 공사현장을 찾아와 격려하고 있는데,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284의7 劉幸完씨(37)같은 이는 4개월전부터 한주일도 거르지 않고 공사현장을 찾아와 일꾼들을 격려해 주고 있다.

충북청원군부용면부강리에서 출생,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吳雄鎭신부는 큰일을 하고 있다는 주위의 격려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자란 어린 시절의 꿈이 불우한 사람들의 등불이 되는 것이었다면서, 때문에 사제의 길을 걷고 있으며 하느님의 복음을 펴나가고 있을뿐이라고 말했다.

海外토픽

◇라디오 손목時計

日本시계제조회사 시티즌社는 라디오가 달린 디지털 손목시계를 곧시판할 계획이다. 「베가·라디오·분인」로 이름붙인 이 새상품은 11월초 시판될 예정이며 시계안에 AM라디오가 있고 이어폰이 달려있다. 이 라디오는 음량조정기가 달려있으며 배터리 1개로 70시간 이상을 들을수있다. 이어폰을 시계에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켜진다. 이시계엔 또 경보와 2중시간장치도 달려있으며 시판 예정 가격은 40달러(한화3만원)선.

珍기록

최연소 챔피언

1976년 3월 6일 산후안에서 라이트웰터급 챔피언이된 푸에르토리코의 윌프레도·고메스는 17세 1백80일로 가장 나이 어린 세계챔피언이 되었다.

百세이상老人 3백72명
中共四川 男子는 68명

중공남서부의 사천(四川)성에는1백세이상의 노인이 3백72명이나 살고있으며 이중 남자는 68명뿐이라고 사천일보가 최근 보도.

이 신문은 지난64년의 인구조사에서 1백57명이었던 1백세이상의 노인이 금년7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3백7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중 여자 최고령자는 1백20세이며 남자 최고령자는 1백18세라고 공개.

사천성은 전체인구가 약 1억명으로서 중공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성이라고. 〔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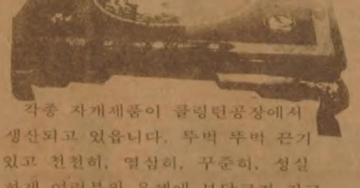
故事通

志於道

먼저 뜻을 세워라. 그 뜻은 사람으로서의 도를 닦을 것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Turtle Mother of Pearl Inc.



각종 자개제품이 클링턴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투박 투박 끈기있고 천천히,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코저 진고 있읍니다.

취급품목 : 각종 자개제품 일절
생산부 : ○커피테이블
○보석함
○구절판
○꽃 병
○자개벽걸이
○문 갑
○애기장 등등…소품부터 대품에 이르기까지
수선부 : 각종자개제품 수선일체 (Insurance Work)

☆ 특별주문 환영합니다.☆
공장 : 361 Clinton St. Tor. Ont. M6G 2Y7
☎ : (416)530-4364, 536-8018

거북이나전칠기공예사
대표 이정석

매일 매일 우편함 속에서
고국의 소식과 생활의 안내가
담뿍 담겨진 한국일보를 꺼내는
기분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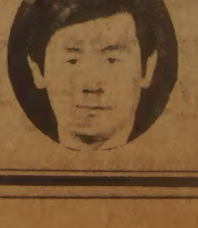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꽃도매상

▲모든 채소 종류
▲각종과일
▲화분
▲Cut Flower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대표 : 곽 덕영
전화 : 465-8167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DON'T WANT TO TAKE ANY CHANCES.

TV의 인기프로인 Starsky and Hutch의 한 장면에서 추격하던 두명의 범인중 그중 한명이 눈앞에나타나자 Starsky가 미행하여 나머지 범인까지 일망타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때 Hutch가 I don't want to take any chances. Let's book him now.라고 말하고 체포하여 버리는 것을 보았다.

take a chance란「운명에 맡기다」「모험을 해보다」라는 뜻이므로 Hutch가 한 말은 나머지 범인을 잡으려다 현재의 범인까지 놓치는「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다.

택시운전수가 속력을 좀더 내라고 하는 손님에게 아랑곳없이 speed limit(속도제한)을 지키고 가면서 I don't want to take any chances.라고 했다면「속도위반을 함으로써 ticket을 받는 무모한 일은 않겠다」는 말이 될 것이다.

—book은「검거하다」는뜻도있으므로 Hutch가 말한 Let's book him now.란「지금 체포하자」라는말이다. 또한 be booked up은「조금도 틈이 없다」라는 숙어이므로 I'm all booked up today.라고 말했다면「나는 오늘 시간이없다」다시말해서「스케줄이 꽉차있다」는 말이다.

Hotel에서 방을 구하려면 front에서 가끔We're all booked up.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방이 모두 예약되어 여분이없다」는 이야기인것이다.

A : I have be to at a meeting by 4. It's already 3:50. Can you speed it up, driver?
B : I'm going as fast as the law allows now.
A : There's an extra five bucks in it for you if you get me there in time.
B : I'm sorry, sir. I don't want to take any chances on getting a speeding ticket. There are always squad cars hiding on this road.
A : Okay, I understand. Please try to get there as soon as possible.
B : I'm doing my best, sir.
A : 4시까지 회의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미 3시50분인데, 운전수 속력을 좀 내줄수 있겠소?
B : 속도 제한 범위에서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읍니다.
A : 만일 나를 시간내에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5불을 더주겠소.
B : 미안합니다, 손님. 속도위반을 함으로써 티킷을 받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도로엔 항상 순찰차들이 숨어있지요.
A : 좋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그곳에 도착할수 있도록 해주시요.
B :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손님.
※speed up : 속도를 더내다.
squad car : 순찰차
want to : wanna【워나】라고 구어에서 발음함.

구입처 :
B. C. MIN
19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連載 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肉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畫

102

지난 줄거리

윤희를 여자장사꾼들 소굴에 투입하여 결정적인 단서를 잡고 습격했다. 일본 녀석이 가짜 권총을 내밀어 위기를 겪었지만 무사히 소탕했다. 그러나 진짜 큰 애들은 일본으로 튀었다. 일본의 비밀 결사조직은 우리나라에 10개의 하부조직을 둔 국제적 극악단체였다. 총찬은 일본으로 건너가 신판 정신대 조직과 대결할 계획을 세웠다.

검토로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멸치형은 집에 없었다. 행방을 물어도 모르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멸치 형을 찾아내고 너희들은 일본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봐라. 가능하면 빨리 찾아봐.』

내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일본이란 나라까지 찾아가려면 복잡한 여행수속을 밟아야만 했고 미지의 나라에 가서 그들 극악한 조직과 부딪쳐야할 두려움이 앞서고 있었다. 표창을 지니고 나갈 일도 걱정이었고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의 해결방법도 문제였다.

멸치 형은 일본말을 잘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멸치 형과 같이 떠날 생각이었다. 일본엘 두차례나 다녀온 경력을 내가 이용하려는 수작이기도 했지만 멸치 형과 같이 떠난다면 일이 수월하게 풀릴 것 같았다. 멸치 형은 일본 애들과 친교가 있는 편이었다.

『단순한 여행은 할 수 없어요. 그쪽에서 초청장을 보내주거나 세미나든지 무슨 국제회의같은 목적이 없이는 곤란해요.』

여행사에 자주 들락거렸던 녀석이 이렇게 대꾸했다.

『임마, 서판 정신대 놈들 때려잡으러 가는데 무슨 놈의 이유가 많아. 헤엄쳐서라도 갈 판이다.』

『형, 성질대로 할게 따로 있는 거 아녜요. 여권이 있어야 비행기를 타죠. 조금 기다려봐요. 방법이 나서겠죠.』

『내가 비행기를 만들어서라도 가겠다.』

『형두 참 질겨요.』

『더 이상 우리나라 여자들을 팔아먹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네 계집애 동생이 팔렸다고 생각해봐.』

『그건 나도 알아요. 찾아낼테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해외여행이 까다롭다는걸 알고 있었다. 서류준비도 많고 여행목적이 분명해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물론 내가 일본으로 국제적인 여자장사꾼들을 찾아나서는 일이 개인으로서 할수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는걸 모르는건 아니었다. 법에 호소해서 될 일이 따로 있는 일이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찾아내고 말 결심이었다. 안되면 고무보트라도 만들어 타고 돌아갈 생각이었다.

멸치 형을 찾으러 나갔던 애들한테서 연락이 왔다.

『어떻게 된 거야?』

『시골에 갔었답니다. 무슨 일이냐고 자꾸 묻길래 대충 얘기했읍니다.』

『그랬더니 뭐래?』

『쓸데없는 짓 말고 가랍니다.』

『알았다. 돌아와라. 내가 연락할테니까.』

전화를 끊고 어떻게 멸치 형을 꼬드겨 낼지 생각해 보았다. 웬만해서 꿈쩍할 사람이 아니었다. 더구나 일본을 쳐들어가자는 데 쉽게 동의할 사람이 아니었다.

『형, 나요.』

『정신 좀 차려라. 쓸데 없는 짓 그만할 때 됐잖아. 일본까지 가서 어쩌겠다는 거냐?』

멸치 형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애들이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 자세하게 말한 모양이었다.

『뿌리를 캐야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뭘로 보는지 알아요? 순박한 처녀를 꾀들려 팔아먹는 녀석들을 그냥 두고 보란 말예요? 모를 때야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안 다음에야 이대로 둘순 없잖아요.』

『네 말뜻은 안다만 이쪽에서 돈 몇푼 때문에 붙어먹는 놈이 더 문제 아니냐. 그런 녀석들만 없으면 그녀석들이 발 붙이지 못할텐데. 네 말대로 하자면 일본을 발칵 뒤집어야 할 거다. 걔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 여기 애들하고 다른데가 있으니까.』

『형, 긴 얘기 필요 없어요. 난 갈테니까요.』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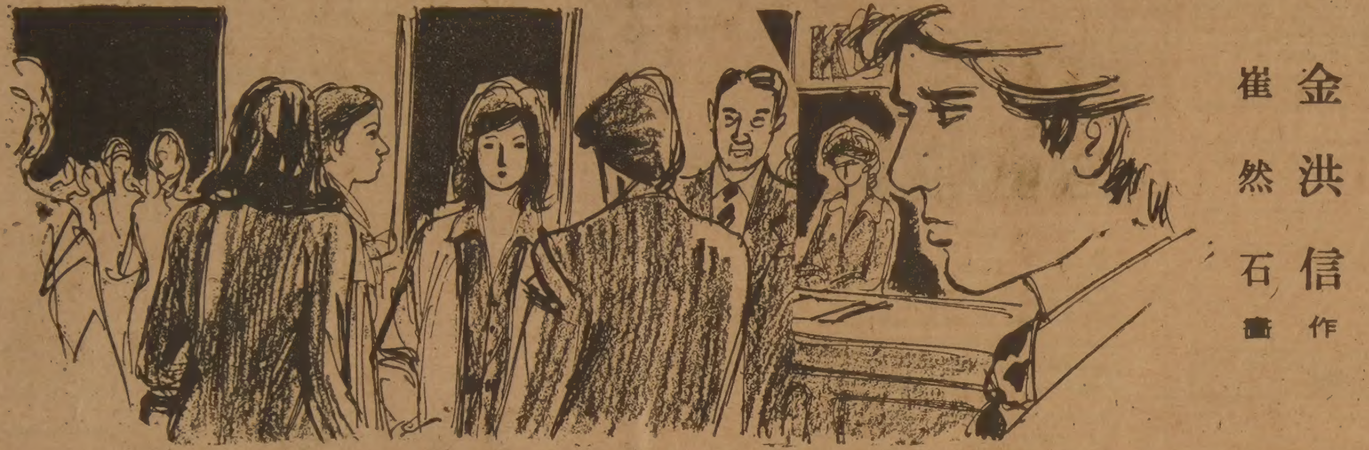
『같이 가주기만 하면 돼요. 난 지리도 모르고 그쪽 사정도 잘 몰라요. 더구나 그 녀석들 정체도 몰라요. 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고작 내가 그런데 필요하다는 거냐?』

『고작이 아녜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형이 나보다 먼저 덤빌줄 알았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이라니...』

나는 흥분하고 있었다.

『흥분하게 말고 잘 들어라. 내가



총찬, 네 말대로 하자면 일본을 발칵 뒤집어야 할거다

언제까지 그 성질을 못 버려야하는지 곰곰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 소리다. 한창 나이에 네가 할일이 고작 그런 일이어야 하느냐 이거다.』

『그건 알아요. 할일 많죠.』

『그런 걸 알면서 어째서 자잘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느냐 말이다.』

『형, 이건 자잘한 일이 아녜요. 형의 여동생이 그런 꼴을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형이 그래도 참을 거요?』

『물론 안참겠지.』

『남의 일이라 참는 거요?』

『그게 아냐. 일이란 순서가 있잖아. 내동생이라도 흥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나도 그건 알아요. 형이 안도와주면 나혼자 가겠어요. 내 성질 알잖아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갈 거요.』

멸치 형은 시간을 갖고 계획을 잘 세우자고 타일렀지만 나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한번 하자고 마음 다진 것을 미룰 수가 없었다.

『며칠 더 생각해보자.』

멸치 형은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고 자시고 할 일이 아녜요. 난 형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

『관둬요. 나 혼자 할테니까.』

멸치형은 일본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하는 소리였지만 나는 그런 사정쯤 가릴 여유가 없었다. 일본 애들이 어떤 조직과 무기로 뭉쳐져 있는지 멸치 형이 얘기해 준 적도 있었다. 국제적으로 제 드센 애들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

『너 혼자 할수 있는 일이면 내가 있으나마나 아니냐. 오히려 내가 거추장스러울지 모른다.』

『싫으면 관둬요.』

나는 모질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둘러섰던 애들도 긴장하는 눈치였다.

『넌 당장 일본갈수있는것을 만들어라. 가장 빨리 갈수있게 해봐.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

『해볼께요.』

『당장, 해봐.』

『예.』

나는 할수만 있다면 날아서라도 당장 일본으로 가고 싶었다. 남의 나라의 순진한 처녀들을 사들여 윤락가에 팔아 넘기거나 다른나라에 다시 팔아 돈을 챙겨먹는 행위의 댓가가 어떤것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정신대로 끌려간 조선처녀들의 비명소리가 다시 재현되는 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여학교마다 돌아다니며 정신대에 들어가 황국신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대동아단결의 기수가 되라고 외치던 이른바 여성지도자들이 아직도 살아서 진짜 독립운동을 한사람이나 그 후손들보다 훨씬 잘먹고 잘사는 이판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젊은애들 손에 또 우리의 순박한 처녀들이 농락당하는 꼴을 앉아서 볼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 당신은 왜 그렇게 잔인한 겁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와 뭐가 그리도 감정이 많습니까. 착하게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밀조밀 모여 살면서 남을 해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힘없는 나라가 된 것이 죄란 말입니까? 힘 없는 게 죄라면 지금부터라도 남을 못살게 구는 나라가 되란 말하고 뭐가 틀립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런 꼴을 보고도 그냥 있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자 편이었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의 편은 아니었읍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으며 현세가 또 그걸 증명하고 있읍니다.

하나님.

정신좀 차리쇼. 제발 정신 좀 차리쇼.

이튿날까지 뛰어다닌 애들은 일본에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얘기만 주워가지고 왔다. 초청장을 보내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것이지만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고 국제회의나 세미나같은 명목을 여행사에서 만들어주어 떠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였다.

『밀수선이라도 구해라.』

나는 화가 치밀어 이렇게 말했다.

『형, 큰일 내지 말아요. 철없지 않게 왜 이래요.』

『이 자식아, 참을 게 따로 있잖아. 우리가 일제시대 당한 생각을 해봐. 쫓아가서 머리가죽을 벗겨내든 아랫도리를 발라오든 해야 할 거 아냐.』

『그건 알아요.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떠날 필요는 없잖아요. 가서 말썽이라도 생겨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당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왜 이래요.』

『이 자식아, 내가 원자탄을 만들수만 있다면 벌써 쳐들어갔을거다.』

『그건 형 혼자 분이 아녜요. 일본 아니라 미국이라도 떡어치우고 싶어요. 콧대를 콱 꺾어앉히고…조금만 참아줘요. 어떻게든 만들테니까.』

외국여행이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해외여행을 불편없이 다니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런데 나같이 정말 꼭 해야할 일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일에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얘기해도 웃어넘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소연할 수 있단 말인가. 일본 깡패 조직과 한판 승부를 하겠다고 하면 나를 미친사람 취급을 할 게 뻔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떠나고 싶진 않았다. 정당한 방법을 찾아본 뒤에 여의치 않으면 부당한 방법이라도 서슴지 않을 각오였다.

밤늦게 춘삼이 형이 전화를 걸었다.

『얘기 들었다. 그렇게 급하게 서둘다가 괜히 공항에서부터 당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가 새어 나가면 그쪽 애들이 만반의 준비를 할 거란 말야. 정 가고 싶으면 몰래 빠져 나가야 한다. 네가 하부조직을 건드렸기 때문에 벌써 그쪽 애들이 비상을 걸었을지 모르니까 우선 몸조심부터 해라.』

춘삼이 형 귀에까지 내 소식이 들어간 것으로 미루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쓸데 없는 소리 말고 내 말 명심해라. 그쪽 애들이 시들지 않다는 것만은 잊지 마라.』

『형, 그쪽 애를 좀 알아요?』

형, 어떤 방법으로든 그놈들과 빨리 부닥치고 싶어요

『나도 말만 들었다. 이익을 위해선 무슨 짓이고 하는 애들이니까.』

『한두개 하부조직을 더 깨어 차버릴까요? 그러면 구체적인 반응이 오겠죠. 제휴를 하자든지 보복을 하든지 말예요.』

춘삼이 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내 의견이 어쩌면 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국제적인 여자판매조직의 보전을 위해서 충분히 그럴수 있는 사내들일 것 같았다.

『방법은 몇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부조직을 건드려서 반응을 볼수도 있고 아예 그쪽에다 도전장을 보내 초청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 제일 좋은 방법은 네가 일본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해결하는 방법일 거다. 네가 적지에 뛰어드는 건 찬성할수 없어.』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러나 그놈들이 쉽게 달겨들지 않을텐데 어쩌죠? 웬만한 애들이면 이쪽 정보도 가지고 있을게 아녜요.』

『바로 그점이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할 문제다. 하부조직이 부서졌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없다면 틀림없이 치밀한 작전을 짜고있을지 모른다.』

『형,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겠어요. 그 자식들과 빨리 부닥치고 싶어요. 형이 어떻게 좀 해줘 봐요.』

나는 춘삼이 형이라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일본 애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터수여서 내게 충고를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우선 몸 조심해라. 내가 방법을 찾아 볼테니까. 그쪽에 가서도 문제다. 말이 안통하니까 귀신 곡하게 너를 숨어다니게 해줄 녀석도 필요하단 말이다. 내 말 알겠냐?』

『알아요.』

『그럼 하루 이틀 찾아보고 나서 얘기하자.』

『나 성질 급한 거 알죠?』

『안다.』

『그럼 형만 믿겠어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주위에서 방법을 찾아보아도 쉽게 방법이 나서질 않았다. 내가 일본이란 나라와 일본의 못된 사내들에 대해 너무 모르면서 덤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물론 아는 게 별로 없었다. 알만한 녀석과 연결도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혼자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멸치 형이나 춘삼이 형이나 모두 같은 얘기 뿐이었다. 두사람은 일본에 대해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다. 일본 애들의 못된 행동이나 그들의 규모도 알고 있었다.

어쨌든 나는 갈 것이다. 몸이 두쪽나서 돌아오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다혜가 떠나는 날 아침이었다.

마음의 한 구석을 떼어 바다 멀리 내던지는 기분이었다. 어느날인가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질 것 같던 여인이었다. 내 사랑의 주식을 몽땅 소유한 여인이 떠나버리는 날이었다. 그녀는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프랑스 파리를 선택했다. 그녀를 떠나보내고 내가 견디어낼 수 있을지를 나는 의심하고 있었다.

기다림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더구나 내 인생을 걸었던 여인과의 이별이었다. 만약 내가 그녀를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사랑했었다면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녀를 훔쳤을 것이다. 그녀가 혀를 깨물더라도 그녀를 몽땅 훔쳤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훔칠수 없었다. 그녀가 스스로 옷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자정한 것은 바로 내 사랑의 징표였다. 며칠 동안 밤마다 우리는 붙어 앉아서 사랑을 확인하기에 바빴다. 입맞춤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기로 맹세했지만 세상의 숱한 맹세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고 있었다. 지리라는 건 사랑을 접근시키기도 하지만 사랑을 내팽개쳐 주기도 하는 묘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랑은 문서로 확인되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런 우리들의 사랑을 육체로 확인해 두려고 했지만 다혜는 마음으로 확인하기를 고집했다.

밤 아홉시 이십분 파리행 대한항공. 그것이 우리들의 작별의 신호인지도 모른다. 우린 결코 헤어지기위해서 손을 흔드는게 아니라 만나기위해서 손을 흔드는 일을 시작한것이었다. 잠시 헤어지는 아픔이 우리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장식할것이지는 미지수였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믿고 있었다. 믿지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믿는 것밖에 우리들에게는 할 일이 없었다.

사랑한다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다혜가 떠나고 나면 허공에 뜬 내 잔등을 어떻게 가누게 될지 모르겠다.

공항 대합실. 다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나는 천천히 돌진해 들어갔다. 그것은 돌진이었다. 나를 싫어하는 다혜네 식구들 속으로 주착없이 끼어드는 것은 돌진일수밖에 없었다. 다혜 아버지의 근엄한 얼굴이 보였다. 나는 허리를 꺾었다.

『오랜만이네.』

손을 내밀었다. 나는 다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다혜가 피식 웃었다.

『그동안 괴롭혀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말을 했다. 다혜를 사랑한 것이 다혜 아버지를 괴롭힌 거라곤 생각지 않았었다. 오히려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가 철이 없어서 자넬 괴롭혔었지. 이젠 공부하러 떠나는 애니까 자네가 많이 도와줘야 되네.』

『네.』

『서로 자제하고....』

『네.』

그것은 다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라는 압력이었다. 나는 다혜 아버지를 한대 갈겨주고 싶었다.

다혜가 다가왔다. 하얀 원피스와 재킷이 그렇게 어울릴 수가 없었다. 청바지 차림의 보통 때 다혜 모습이 아니었다.

『가서 매일 편지 쓸 거야.』

다혜가 먼저 말했다.

『공부 잘해.』

『우리 아버지같은 소리만 해.』

『다혜,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이거든.』

『우리 아버진 이해해봐. 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지몰라.』

『난 아버지가 안될 거니까.』

『후훗.』

다혜가 입을 가리고 웃었다. 다혜의 친구들이 나를 둘러싸고있었다.

『이별을 축하합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다혜 친구들이 짓궂게 다혜와 나의 이별을 축하하고 있었다. 젊음을 부리고 난 다혜네 식구들의 눈언저리가 붉어오르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블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 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등···
영업시간: 수~토-5:30pm~11pm 일-5:30pm~10pm
5304 Yonge St.(at Finch)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SUN'S FRUIT MARKET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활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 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 Mr. 람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쉐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한병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전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드라이크리닝 매매
전화 : 923–2785(Any Time)

맥스밀크에서 금·토·일요일 일할 여자 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8–4867

칸추리스타일 도넛숍에서 주말에 일하실 파트타임 헬퍼 구함.(Keele & Finch 지역)
전화 : 630–9413

레스토랑 맡아서 경영하실분 구함.
전화: 859–4554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구함
전화 : 271–1482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2살반, 3살반
전화 : 247–0643(오후 8시이후)

Gas Attendent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487–2349, 924–0227

주방 여자 헬퍼 구함.(50세 미만)
전화 : 537–0432

절호의 챤스. 급성장하고 있는 스탁 중개업자가 경험있는 회계사나 또는 Training을 받으실 분 구합니다.
이력서를 보내세요: Goulding, Ross Turner Ltd.
283 Spadina Ave, Suite 208
Toronto, Ont, M5T 2E3

주말에 도넛숍에서 밤일하실분 구함.
금·토요일밤: 밤11시~아침7시.
전화 : 977–0303

◉경험있는 호텔 청소하실분 구함(11PM~7AM)
◉경험있는 수퍼바이저 약간명 구함.
전화 : 630–2450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1개월간 목공일 하실분(기술 필요치 않음)
AURORA 지역.
전화: 1–727–1021(낮12시~1시 연락바람) Mr. 조

오리엔탈·팔레스
한식요리사 1명, 일본식요리사 1명 구함.
전화 : 533–3545

금·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
Islington & Rexdale
전화 : 742–0800 Mr. 리

Oakville Convenience Store 매니저 구함.
현재 주매상: $8,000이며 스탁은 캐쉬로 원함.
전화: 633–5231(Mrs. 윤), 669–1518(Mr. 유)

여자 룸 메이트 구함.
Bathurst & Finch
전화 : 633–0127(6시이후)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162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섬세한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가정용 스토브(오븐) 팝니다.
전화 : 749–2297 Mr. 조(오후6시 이후)

오픈하지 1주일된 새가게 매매.
New Plaza, New Sub. Div.
Call Guneva Real Estate 749–6677 Mr. 조

〈81년도 Dodge 스테이숀 왜곤〉
4기통, 25,000Km. $ 7,500.00
전화 : 535–4441 Mr.김

Luckey Doller Store, 비지니스 재료와 빌딩, 가족이 운영하기 좋음. Town에 있고 바쁜 Highway 옆이고 살림집 있음. 저희는 토론토 북쪽에 여러가지 스토아가 또 있읍니다.
◉아스킹: $135,000+스탁, ROYAL TRUST REAL ESTATE,
전화: (416)691–6111(토론토)
•(705)325–6193 Degraw Rben(Red)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건강이 나쁜 관계로 급히 우체국 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시민권자나 이민자라야 함. 주 Net $550(경비제외하고)
전화 : 691–5297 Mr. Gilbert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500
전화 : 255–7597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3,500~4,000
비데오 머신에서 월 $800~900
5887 Bathurst St.(N. of Finch)
직접 내방 바람. 빌딩도 살 수 있음.

부동산 투자. Detached 벽돌사무실 빌딩.
7,800 sq. fit. 년매상: $50,000정도
Hollywood Real Estate Ltd. 746–4360 John Ritacca.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Pickering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빨리 팔기위해) 아스킹 $63,000 내렸음.
주매상:$7,200, 1,200 sq.Ft. 렌트:$500.
Plaza 내에 있음. 주인이 이사함.
Bagot Realty Inc. (Rlts.)
1–579–4010 or. Frank Magnus 683–8154(저녁)

Drycleaner's Depot 매매.
◉스카보로 지역. ◉좋은 리스.
전화 : 751–7615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위치·경쟁없음
Set up한지 2개월. 주매상: $3,700+비데오(월 500수입)
증가중에 있음 ★46 Annette St. TOR.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살림집 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권리금 없음
–G.M.회사에서 가까운 바쁜 거리.
230 Ontario ST.(전화: 1–685–5863) St. Catharines.

플라자내에 있는 10개 스토아 매매. 1.2 Acres.
둘레 주변에 파킹장 있음. 새롭고 좋은 주택가.
1년 Gross 인컴 $64,000. 아스킹 $500,000.
1st 물개지 $126,000. 13%. 다운 $1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M & CO. LTD.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1 Bd Room 아파트, 스카보로지역
(Markham & Lawrence) 리스 83년7월까지
전화 : 438–4537(오후4시~8시) Mr. 한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콘도미니움아파트 렌트, 3Bed Rm.(Jane & Eglinton지역)
◉월$700(다 포함됨) 실내수영장·사우나·체육관 있음
전화: 535–880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트×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홍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쎈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크리스마스 대매출

세일기간 12월1일~31일(한달간)

뜨거운 마음을 그녀의 몸에 얹어 보세요

30% OFF 품목

- 로렉스 시계
- RAYMOND WEIL 시계
- 세이코 시계
- 시티즌 시계
- 금목걸이(순금은 제외)
- 진주목걸이
- TUDOR 시계
- 각종 라이타(카티어 포함)
- 각종 가죽제품
- 각종 보석 반지

40% OFF 품목

- 콩코드 시계
- 오메가 시계
- 크리스찬디올펜과 시계
- 카티어 가죽제품
- 카티어 시계

다이야몬드 스페샬

1 CRT 여자용 다이야몬드반지 $799.-부터
1 CRT 남자용 다이야몬드반지 $599.-부터(10~14K)
1 CRT.TW. 여자용 다이야반지 $1045.-부터
75 PTTW 여자용 다이야반지 $850.-부터
50 PTTW 여자용 다이야반지 $660.-부터
25 PTTW 여자용 다이야반지 $500.-부터
20 PTTW 여자용 다이야반지 $350.-부터
50 PTTW 여자용 다이야반지 $1500.-부터
15 PTTW 여자용 다이야반지 $299.-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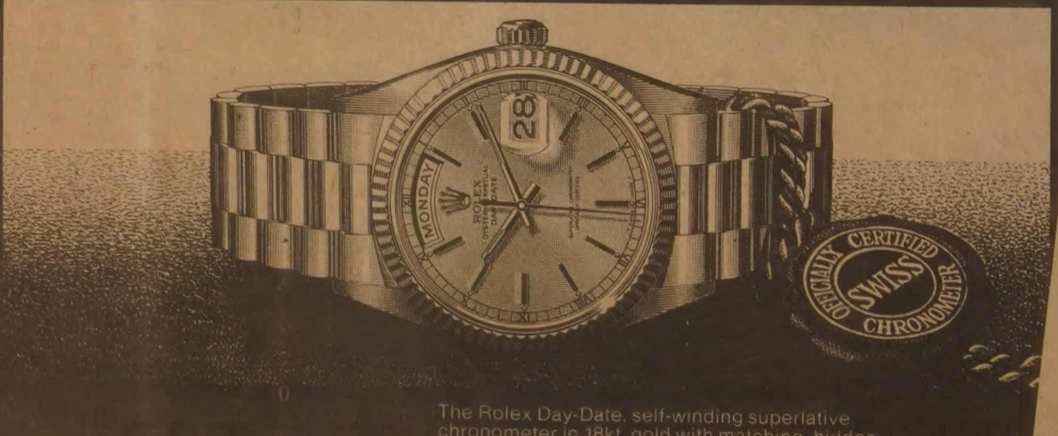
다이야몬드 귀걸이

5PTTW - $99.-
10PTTW - $199.-
20PTTW - $285.-
30PTTW - $360.-
50PTTW - $735.-

◇상기품목 외에도 $20만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스페샬 임
◇상기품목은 14Kynw에 세팅되어 있음.

NEVER HAS INTEGRITY MEANT SO MUCH TO TECHNOLOGY:

ROLEX



The Rolex Day-Date, self-winding superlative chronometer in 18kt. gold with matching, hidden clasp President bracelet, pressure-proof down to 165 feet in its impregnable Oyster case.

〈교포 유일한 연방정부 보석가공공장면허 소지업체〉

620A BLOOR ST. W. TOR.
☎534-9977/7791

GOLDFINGER JEWELLERY CO.

은하보석상